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TV합동토론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 분석
: 2012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2013년 8월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김 은 지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TV합동토론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 분석
: 2012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A Rhetoric Analysi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 2012 Presidential election

지도교수 오 창 호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김 은 지

김은지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심 문학박사 이 상 기 (인)

위원 철학박사 김 무 규 (인)

위원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목 차

Ⅰ. 서론----------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1

Ⅱ. 이론적 배경 ----------5
1.수사학에 관한 연구----------5
1)설득으로서의 수사학----------5
2)수사학의 5가지 규범----------8
3)수사학의 변천과정----------14
4)정치와 수사학----------18
5)대통령후보자의 수사----------21
6)베노이트(Benoit)의 기능이론----------24
2. TV토론에 관한 연구----------37
1)후보자 TV토론----------37
2)TV토론효과----------39
3)TV토론형식----------41
4)TV토론주제----------44
3. 선행연구검토----------45
1) TV토론 수사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45
2) TV토론에 관한 선행연구 ----------50
3) TV토론 형식(format)에 관한 연구----------51

Ⅲ. 연구문제 및 방법----------53

Ⅳ. 연구 분석 및 결과----------62

Ⅴ. 결론 ----------94

1. 요약 및 결론----------94

2. 제언----------99

참고문헌----------100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차례>

<표 1> 수사학의 5가지 규범----------5
<표 2> 베노이트의 이미지 회복 전략의 유형----------26
<표 3> 설득적 공격의 범주와 전략----------29
<표 4> 설득적 방어의 범주와 전략----------31
<표 5> 베노이트의 기능이론----------36
<표 6> 역대 대통령선거 TV토론형식----------42
<표 7> 분석 유목----------79
<표 8> 분석 단위----------61
<표 9> 후보자별 수사 목적----------63
<표 10> 후보자별 주장 유형 및 전략 ----------67
<표 11> 후보자별 공격 유형 및 전략----------72
<표 12> 후보자별 공격 대상----------76
<표 13> 후보자별 방어 유형----------78
<표 14> 후보자별 방어 전략----------80
<표 15> 주제별 후보자의 수사 목적----------84
<표 16> 토론형식별 후보자의 수사 목적----------87
<표 17> 비유법 사용 횟수----------90
<표 18> 후보자별 긍정적, 부정적 표현 횟수----------91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오늘날의 선거는 미디어가 중심이 되고, 정치후보자나 유권자는 미디어 없이는 선거를 치룰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운동장에서의 합동유세 등 과거의 전통적인 선거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보도,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정보가 전달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들의 TV토론 및 연설, 정치광고 등을 통하여 정치이슈를 쟁점화하고, 유권자에게 보다 접근하기 쉬운 '저비용 고효율'의 미디어선거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8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2012. 12)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질문에 'TV토론 및 방송연설'이 37.5%, 'TV·신문 등 언론보도'가 35.5%, '인터넷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주변사람'은 3.7%, '정당과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 홍보물'은 1.6%이었다. 이처럼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TV토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TV토론이 가장 합리적인 정치과정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형식의 선거캠페인보다 효과적인 선거캠페인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전영란, 2007).

TV토론은 선거캠페인에 나타나는 정치행위자의 수사학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TV토론은 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데, 이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송종길, 2004). TV토론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토론에 미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학적 전략을 사용한다.

TV토론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론의 핵심은 자신과 다른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송종길(2004)은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입장과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충돌을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시청자들은 후보자들 간의 대립되는 정책과 이미지의 충돌을 보면서 후보자들을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TV토론을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저비용 · 고효율'로 유권자에게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선거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TV토론은 미디어의 변형이나 왜곡에 따른 통제가 적은 상태에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토론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raus, 2000). 이남기(2001)는 자신의 논문에서 TV토론은 후보자간의 면대면(face-to-face)대립이라고 표현하였다. 후보자들은 면대면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수사학 연구는 후보자의 수사학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토론에 나타나는 유형화된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정치는 결국 수사의 연속이다. 정치적 설득행위인 정치수사학(修辭學, Rhetoric)[1]은 정치인이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있다. 정치 자체가 레토릭이라 할

1) 고대에는 수사학을 "훌륭한(곧 효과적인, 아름다운) 말에 관한 주제이거나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레토릭은 예부터 철학, 정치학, 윤리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연구되었으며,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에도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전영란, 2007).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의 언어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사학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체계이다. 정치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는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즉 논증의 능력이 요구된다(전영란, 2007).

기존 TV토론에 관한 연구는 TV토론의 영향력과 유권자의 반응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정성호, 2003;이강형, 2004;이종수, 1995a).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수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TV토론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분야가 후보자의 수사(Rhetoric)에 관한 연구이다. 후보자의 수사 연구는 TV토론 연구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유는 후보자들의 토론이 바로 말(speech)과 주장(argument) 그리고 논쟁(debat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극히 기초적인 관심에서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토론에서 제시하고자하는 메시지의 구성과 토론전략은 '후보자의 수사학' 영역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이남기, 2001).

따라서 TV토론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에 대한 분석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후보자가 토론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유권자에 전달하는지가 핵심이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이해되는 TV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수사에 관한 분석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와 TV토론을 평가하는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TV토론에 나타난 각 후보자별 수사에 관해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TV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수사 목적(주장, 공

격, 방어)은 무엇인가, 둘째, 중앙선관위에서 선정한 토론 주제별 후보자들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무엇인가, 셋째, 토론 형식별 후보자들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무엇인가, 넷째, 후보자들은 비유적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TV토론 수사학 분석은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에 따라 유형화 하여 단순히 내용 분석에만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순한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사적 표현인 비유의 사용까지 분석하였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이론적 배경

1. 수사학에 관한 연구

1) 설득으로서의 수사학

수사학(Rhetoric)이라는 말은 ‘변론술(the art of public speaking)’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인 ‘Rhetorike'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의 변론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화법연구에서 시작됐다(안상혁, 2003). 사전적으로는 “말과 글을 갈고 닦고, 꾸미는 행위” 혹은 “언어를 수식하며 배열, 조작하거나 담긴 내용을 과장, 축소, 미화 또는 왜곡하여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또 어떤 의도를 위해 수용자에게 표현되는 단어나 이미지, 제스쳐까지 포함된다.

수사학(Rhetoric)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시기는 B.C. 47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칠리아섬에 있는 도시국가 시라큐사에서 코락스와 그의 제자 티시아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법정과 시민적 생활의 주된 공간인 민회와 기념식장에서 말 잘하는 기술로서 발전되었다. 즉, 고대 수사학은 의회에서 연설, 재단에서의 논쟁, 일상적 좌담에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로 간주됐다. 기원전 5세기 이전부터 수사학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일조한 것이 바로 수사(speech)였다. 토론과 토의, 연설이 정치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스피치 기술과 말의 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수사학에서의 설득은 고

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학문분야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으며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사학에서의 '설득'은 핵심적인 모티브이자 수사학이란 학문을 구축하는데 요체가 된다.

21세기를 수사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수사학은 커뮤니케이션학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형(Timothy Borchers, 2006, p 60)이다. 커뮤니케이션학자 루카이츠, 콘디트, 코델(Lucaites, Condit, Caudell, 1999)은 "수사학은 시학(poetics)의 논리에서부터 모든 담화의 형태를 개척하고 포함하는 방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학자 조셉 거스필드(Joseph Gusfield, 1989) 역시 "우리는 수사학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옷을 입고 먹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수사학이 존재한다."며 수사학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

수사학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수사학이 상대를 속이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편견과 인식은 현대에 와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수사학에 대해 '나쁜 수사학'으로 명명[2]하고, '진실을 배제한 공적 담론의 적'이라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모순적인 여론과 비현실적 은유를 들었다. 특히 플라톤은 수사학이 정의와 진실을 다루지 않으며 허위에 진실의 힘을 부여하는 위험한 것이며, 공허한 은유의 남발과 장식적 용어는 소피스트 방식의 언어학적 특성(임순미, 2010)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이성과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사변적이고 궤변적인 방법으로 청중을 혼란과 혼미함에 빠트려 소기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2) 플라톤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두 개의 수사학을 논한다. 1)현실의 수사학은 어떤 담론이든지 상관없이 쓰기만 하는 행위인 기교적 산문술에 의해 구성된다(더 이상 재판적 수사학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념의 통합이 중요해 진다). 또 그 목적은 사실 임직함, 즉 환상에 있다. 그것은 수사학자, 학교, 고르기아스와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다. 2)당위의 수사학은 진정한 수사학이고, 철학의 수학 혹은 변증법이기도 하다. 그 목적은 진실에 있고 플라톤은 그것을 심리 발현술 psychagie(말에 의한 영혼의 성숙)이라고 부른다(김현, 1985).

소피스트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플라톤은 '설득'이란 이성적인 논리에 입각한 화자의 태도 변화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설득을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수사학을 '개연성을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인정'하고 변증법의 자매학문으로 수용[3]했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변증법의 닮은꼴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양자를 공유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어떤 주장을 검증하거나 견지하기 위해서(변증법에서처럼)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때 (수사학에서처럼) 양자를 다 써 본다."(Aristotle, 1991, pp28-29).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수사학은 주장을 제시하는 반면, 변증법은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아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한 설득의 수단들을 찾는 능력"이라고 정의(Aristotle, 2009, p. 36~48)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이론가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것(Lucaites, Condit & Caudell, 1999)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설득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거한 진리추구에 있었음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연종, 2008).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성원의 합의에서 찾고 구성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이귀혜, 2007). 과학 철학자 쿤 역시 '과학을 움직이는 힘은 참과 거짓의 증명이라기보다 오히려 확신이나 설득에 가깝다'고 하였으며, 신수사학자 패럴만(Perelman, 1982) 역시 수사학에서의 설득적 기술이 가장 중요한 학문적 요체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수사학의 목적이 설득의

3) 플라톤은 수사학은 변증법에 비해 열등하며, 진실이나 윤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과 변증법은 같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Aristotle, 1991, p35).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변증법의 닮은꼴이라고 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가르치는 것임을 의미한다(Timothy Borchers, 2006, p 6).

수사학이 설득의 기술로 인식되면서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수사학과 양식(Rhetorica ad Herennium)』[4]이다. 이 이론은 수사학의 5가지 규범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최초로 기술했으며 오늘날에도 체계적 방식의 구성으로 최근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2) 수사학의 5가지 규범

『수사학과 양식(Rhetorica ad Herennium)』은 고전적 수사학의 5가지 규범을 소개하는 중요한 틀로 기능한다. 수사학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발상(invention), 배열(arrangement), 표현(style), 기억(memory), 발표(delivery) 의 5가지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표 1 > 수사학의 5가지 규범

규범	정의
발상	주제와 그것을 지지하는 자료의 결정
배열	연설의 구조
표현	청중에게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언어의 사용
발표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을 포함한 연설의 실연
기억	연설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기억

4) 『수사학과 양식(Rhetorica ad Herennium)』 : 이 책은 고대 서적으로 수사학적 이론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담고 있다. 대략 B.C.E. 100년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로마의 저자가 집필하였으며, 이 책이 키케로의 저술인 『변론가론(De Oratore)』과 유사한 이유로 한때 키케로 저작설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익명의 저자로 알고 있다. 대부분 그리스의 수사학적 이론에 근거한 이 책은 로마제국시대부터 1500년대 르네상스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다(Timothy Borchers, 2006, p 55).

먼저, 발상은 관련 쟁점을 정의하고, 연설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만들고,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배열은 수사학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보통 도입부, 주장, 증거, 결론으로 구성된다. 표현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연설의 기술적 부분을 말한다. 발표는 연설자가 실연할 때의 언어적·비언어적 특징들을 말한다. 기억을 실연을 할 때 연설 내용을 회상하는 것과 연설에 사용된 정보의 회 상을 말한다. 이 5가지 규범은 수사학이 독창적이고 분석적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연설가들은 수세기 동안 수사학을 만드는 방법으로 5가지 규범을 사용해 왔다. (Timothy Borchers, 2006, p 60).

보다 구체적으로 5가지 규범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론가들은 발상을 균형상태(Staisi), 논증(Proof), 토포이(Topoi)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균형 상태는 정지점,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해 두 연설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키케로는 균형상태가 법적인 논쟁이나 정책의 논의를 포함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쟁점”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수사학에서의 설득은 논거를 증거로 사용해 청자를 확신시켜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무엇인가 논증되었을 때 가장 잘 믿는다.”고 기술하면서 논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논증과 비기술적 논증[5]으로 구분하였다(Aristotle, 1991, p.33). 비기술적 논증이란 상황에 주어진 것으로, 연설자에 의해서 이용만 될 수 있는 것으로, 연설자가 비기술적 논증을 만들 수는 없다. 연설자는 세 가지의 부가적인 논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적 논증이라 정의하며 중요성을 언급하고

5) 논증기법(pisteis)중 일부는 비기술적(atechnic)이고, 일부는 기술적(entechnic)이다. 나는 우리(즉, 잠재적 화자)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비기술적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목격자 고문을 당한 노예의 증언, 계약서 등, 방법론이나 우리에 의해 준비된 것들을 기술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전자는 사용하는 것이고 후보는 발상하는 것이다(Aristotle, 1991, p.37)

있다. “어떤 것은 화자의 특성이고(에토스), 다른 것은 청자에게 달려있는 것이고(파토스), 또 다른 것은 무엇을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처럼 함으로써 주장 그 자체를 담는 것(로고스)”(Aristotle, 1991, p.37)이 기술적 논증의 핵심이다.

에토스는 말하는 화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청중의 관심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화자가 지녀야 할 성품이다. 청자에게 관심을 끌고 매력을 느끼게 하며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개인적 성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의 핵심요소로 신뢰성과 전문성, 열정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에토스는 화자의 고유한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용모, 인상, 태도, 음성, 전달력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에토스는 호감이 가는 전문가가 특정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면 설득의 효과는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연종, 2008).

파토스는 메시지 전달에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설득 과정에서 수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정감적 요소들이다. 가령 인간이 보편적 가치관으로 지니고 있는 정의감, 진리추구, 동정심, 사랑 등에 대해 소구하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고려해야할 정념들로 분노와 평온, 우정과 증오, 불안과 신뢰, 수치심과 파렴치, 친절, 동정, 분개, 선망, 경쟁심과 경멸 등 14가지를 제시했다(박성창, 2000). 설득과정에서 화자는 이러한 청중의 마음상태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 적절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원하는 감정을 유발하여 자신과 동일시를 이루게 하는 것이야말로 설득의 비법이라는 것이다(Aristotle, 1980;김종영, 2004;김연종, 2008).

실제 설득과정에서 파토스와 에토스의 구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에토스가 화자의 속성을 말한다면 파토스는 청자에 비중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에토스는 화자가 지니는 성품을 말하는데 비해, 파토

스는 청자의 마음상태나 심리적 성향, 정서에 보다 초점이 모아져 있다(이귀혜, 2007).

로고스는 논리적 설득 또는 증명을 말한다. 화자의 논리적 구성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구분이 쉽다. 로고스는 메시지의 핵심이나 내용은 물론,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김연종, 2008).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서 청자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술적, 내재적 근거로 화자가 창조하는 주관적 수사적 논거이며, 둘째는 자연적 외재적 논거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말한다. 설득수단으로서의 에토스·파토스·로고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술적이고 내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에토스·파토스는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기술로서 흔히 귀납법, 삼단논법, 예증법 등이 사용된다. 이에 비해 자연적 근거들은 판례, 외부 사례, 증언 등이다(이귀혜, 2007).

마지막 발상의 규범인 토포이(topoi)는 모든 주장의 주제를 말한다. 케네디는 토포스(topos)[6]를 "장소" 또는 "화자가 '활용 가능한 설득의 수단'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수사학의 5가지 규범 중 두 번째는 연설의 순서나 구조와 관련된 배열

6) topos : 일반적으로 '토포스'는 몇 개의 모티프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이루어내는 고정형이나 진부한 문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장소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토포스는 라틴어로는 sedes, loci, 영어로는 commonplace로 번역된다(복수는 topoi). 이 말은 또한 '공론'(김현 편, 『수사학』), '일반적 논제'(『수사법』) 등으로도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비평에서 토포스는 몇몇 모티프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고정형 문구나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린 문구를 가리키는 말로서 모티프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1.30., 국학자료원).

이다. 수사학적인 배열은 수사학의 둘째부분으로서 연설이나 문장을 효과적인 순서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서론부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청중들이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연설자는 호감을 얻기 위해 에토스와 관련되기도 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파토스와 관련되기도 한다. 진술부(주제부)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주로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거나 전설 혹은 허구적 이야기를 이야기 양식으로 말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간결하며 신빙성 있게 서술해야 한다. 여기서는 로고스적 특징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된다(박성창, 2000). 논증부는 논거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양태종, 2002)으로 예증법과 논증법을 주로 사용한다. 결론부는 연설을 맺는 마지막 부분으로 청중의 기억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요약이 중요하다. 청중 설득의 기회로 대부분이 감정개입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결론부에서는 요약과 청중과 분노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양태종, 2002)하고 로고스와 파토스의 결합(박성창, 2000)이 이뤄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네 부분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의적 수사학은 주로 서론부(proem), 주제부(propositio), 논증부(confirmatio), 결론부(peroratio)를 이용하였고, 진술부(narratio)가 가끔 첨가되었다. 또 법정적 수사학에서는 논증부 다음에 반론부를 따로 두기도 하였다(현경식외, 2000).

세 번째 규범은 표현이다. 블레어(Blair)는 언어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표현이란 “사람이 그의 생각을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는 고유한 방법”(Blair, 1965, p.183;Timothy Borchers, 2007)이라고 설명하였다. 블레어는 표현에는 명료함과 장식이

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명확성이란 언어를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며 순수성, 타당성, 정교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순수성은 “다른 언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며, 타당성은 바른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성은 지나치게 많은 말과 표현을 지양하고 화자의 생각의 요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표현의 두 번째 요소인 장식은 우아하고 강력하거나 운율이 있는 문장이나 회화적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블레어에 의하면 수식의 사용은 언어를 풍부하게 하고 화자나 필자의 표현에 품위를 더해 준다. 수식적 언어는 화자를 즐겁게 하고 논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인상적인 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블레어는 비유의 효과는 “기술에 빛과 힘을 주며, 지적인 생각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색과 질감과 느낄 수 있는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시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유는 ‘혼란’과 ‘부정확’을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활용되어야 한다(Blair, 1965, p.297;Timothy Borchers, 2007, p 107~110).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과 수사학(修辭學)에서 비유를 다루었는데, 그 중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를 마음대로 부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남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천재의 표적이니, 좋은 비유는 다른 것들 속에서 같은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함을 뜻하는 까닭이다.” 이라 말한 점을 미루어보아 비유를 효과적으로 말하기위한 한 방법 중 하나로 여긴 듯하다(김세림, 2013). 그만큼 수사의 규범 중 표현의 역할은 정치 수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논리 체계에 따른 설득전략 외 표현 전략의 하나인 이미지 수사 연구도 함께 시도해 보았다.

네 번째 규범인 발표는 음성의 특성과 신체적 동작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음성의 특성은 화자의 목소리의 세기 또는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크기, 목소리의 건강을 말하는 안정성, 목소리의 억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유연성으로 구분된다. 발표의 두 번째 부분인 신체적 동작은 제스처와 얼굴 표정이 포함된다. 제스처는 눈에 잘 띄어서는 안 되며, 얼굴표정은 말한 내용에 신뢰감을 준다(Timothy Borchers, 2007, p. 74~75).

마지막 다섯 번째 규범인 기억은 연설이나 담론을 외우는 방법과 연습을 하는 부분으로 주로 연상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늘의 지식을 연상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3) 수사학의 변천과정

수사학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수사학이라는 용어는 연설 방법 혹은 효과적인 연설 전략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정보 전달 및 설득을 위한 언어 사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와 지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문체의 분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김영석, 2008).

수사학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고전 수사학, 중세 수사학,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 계몽주의 시대의 수사학, 20세기의 수사학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Bizzell & Herberg, 1990). 고전 수사학은 기원전 5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수사학을, 중세 수사학은 5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수사학을,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은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수사학을, 계몽주의 시대의 수사학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수사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학의 시기적 구분의 중심에도 여전히 정치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비젤과 허벌그(Bizzell & Herberg, 1990;박영목, 2003 재인용)는 각 시대 수사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전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그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에 의해 그 체계가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수사학적 담화의 형식을 과거 행동의 판단에 주된 관심을 두는 법정 연설과, 미래 행동의 촉구에 주된 관심을 두는 정치 연설과, 현재 상태에 대한 공유된 신념의 강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의전 연설로 구분하였다(Ueding,1996). 고전 수사학에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청자(audience) 분석을 강조하였는데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형식의 담화에서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 분석의 방법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고전 수사학은 수사학의 체계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모든 시대의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에서 규정한 담화 생산의 목적, 예상 청중(audience), 담화 생산의 과정, 논증, 담화의 조직 및 배열, 효과적인 표현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중세 초기의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수사학을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정적 유산으로 인식하였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연역 논증을 통하여 가능 세계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수사학의 암흑기라 일컬어지는 중세 후기의 수사학은 효과적인 설교 및 공식적인 편지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또한, 수사학적 연구에 있어서 내용의 창안이나 배열에 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문체에 관한 연구를 연구의 주된 대상

으로 삼았다. 중세 수사학의 역사적 의의는 고전 수사학의 업적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문예 부흥기에는 문체론적 수사학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수사학이 문체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고전에 대한 학습이 성행하였기 때문이다. 문체론적 수사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어구 및 문장에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마침표 쉼표 괄호 인용부호 등의 용어는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문예 부흥기의 수사학에서는 개인적 담화의 문제를 중시하였다. 개인적인 대화나 사교상의 예절 등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담화에서의 성공이 정치적인 성공 혹은 사회적인 성공 여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사고의 과정 및 언어 사용의 과정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진리의 객관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가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언어 사용의 일반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를 통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도록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로크(Locke)를 비롯한 그의 후계자들은 수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및 18세기의 수사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탈리아 수사학자 비코(Vico)는 수사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내는 학문이 아니라 가능성과 신념에 근거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의 기능에 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19세기 수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심리학과의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고전 수사학에서는 담화 생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후의 수사학에서는 담화 생산의 심리학적 측면이 거의 경시되어 왔다. 19세기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수사학자인 바인

(Bain)은, 비교, 대조, 연상 등과 같은 발화의 양식은 정신 작용의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며, 묘사, 서사, 설명, 논증, 시가 등의 담화 양식은 인간의 정신적 기능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세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대중 교육의 확산 및 새로운 대학의 설립 등의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학은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그 주된 명맥을 작문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등의 학문이 이어받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의미, 가치, 의도, 지식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수사학적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리차드(Richards, 1936)는 의미는 담화 맥락과 함수 관계에 있으며, 언어는 하나의 담화 내에서 사용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담화는 그 담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수사학을 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 이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버크(Burke, 1969)는 모든 종류의 담화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는 담화의 의도와 효과 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학을 인간의 언어 행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종교적 미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현대 수사학은 지식의 원천과 위상에 관한 문제 및 지식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Bakhtin, 1986; Foucault, 1972; Derrida, 1977;박영목, 2003 재인용). 지식의 위상 및 지식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수사학이나 철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대의 학문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은 합리적 관찰이나 사실의 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증에 의하여 발전한다. 인간의 새로운 학습은 해석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학문은 논증에 의하여 진보하고, 인간의 공동체는 담화에 의하여 결속력을 가지게 되며, 인간의 이

데올로기는 설득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 또는 실체 그 자체는 인간의 언어 사용 방식과 함수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수사학은 그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인문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담화 행위, 담화 장르, 담화 공동체, 의사소통의 장면, 의식의 언어적 구성, 지식의 수사학적 구성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 수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언어 사용은 그 의도에 있어서 항상 설득적이며, 윤리적인 문제 및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포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언어 사용은 심리적 체계임과 동시에 대화에 바탕을 둔 사회적 체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수사학은 특정한 맥락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 문제를 다룬다. 지식과 신념은 설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과 신념을 일정한 이데올로기 하에서 작용하도록 돕는 일 또한 현대 수사학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수사학에서 인식의 문제 혹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대 수사학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수사학 이후로 수사학은 지식의 탐구 및 정치적 행동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의 관심을 가져 왔다. 수사학의 역사는 담화와 지식, 의사소통과 그 효과, 언어와 경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바친 탐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박영목, 2003).

4) 정치와 수사학

수사학(Rhetoric)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의 변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화법의 연구로 시작(안상혁, 2003)됐으며, 수사학이 확립되었던 기원전 5세기 이전부터 수사학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였다. 고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던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국가적

중대사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speech)였다. 토론과 토의, 연설이 정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스피치 기술과 말의 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소피스트 철학자 및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연구로 융성하게 된 수사학은 고전적 의미에서 세 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정에서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변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재판적 장르다. 둘째, 정치적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충고나 정책적 입안을 결정하는 정치적 장르이다. 셋째, 대중들 앞에서 찬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과시적 장르다. 이러한 엄격한 전통적 장르의 구분 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설득의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이미 수사학이 적용(Reboul, 1990;장애리, 2012)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사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상호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학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Cooper, 1960;전영란, 2007 재인용), 롤랑 바르뜨는 레토릭의 영향력을 일컬어 '레토릭의 제국'에 비유하였다(전영란, 2007).

고대 그리스나 현재의 미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사학이 모든 종류의 정치적, 법률적 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후보자는 수사학 캠페인을 이용하고 공중의 다수표를 획득한 다음에야 공직에 선출된다. 또 선거에서 제안된 정책의 이점을 토론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최대 관심사들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수사학을 사용한다.

정치와 수사학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듯 정치를 부분적이지만 수사학으로 정의하는 것은 Nelson(1987)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

다. 수사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고, 언제나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치학의 중심에 정치의 담화 혹은 수사학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정치학과 수사학의 부분 집합에 영역을 이처럼 넓게 보는 이유는 수사학의 핵심이 곧 설득이기 때문이다(Timothy Borchers, 2006).

헌법상으로 대의 정치의 주요 과정, 제도, 그리고 이슈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대의 정치 제도에서 통치자, 법, 그리고 정책의 합법성에 관해 묻는다는 것은 주로 대외 정치 제도가 대중의 의견을 관리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관료들이 얼마나 잘 대중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잘 대중의 문제에 관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선거와 사회적 운동, 매스미디어, 정치적인 사회화는 수사학을 정치의 중심에 갖다 놓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동원과 선전, 정치적 상징, 반대 의견의 억압 등에서도 수사학의 모습이 비친다(Nelson, Megil & McClosckey, 1987;김연수, 2009 재인용).

이를 종합해서 보면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수사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세기에 걸친 노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Gronbeck, 2004). 또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은 곧 정치 수사학의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 수사학은 사실상 25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폴리스라는 서구의 삶 전반에 걸친 수많은 정치 시스템 안에서 작용하는 수사학들로 이뤄진다. 따라서 수사학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절차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를 방해하는가로 정치 수사학의 의미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주의자들의 시간에 의한 해석에서도 수사학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플라톤식 인식론적 이상주의와 정치적 파시즘이 지식과 공공

절차에 대한 경쟁적인 논리와 대적할 수단을 주기 위한 것으로 탄생된 것이다. 서구 정치행동의 중심은 규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그려졌고, 정치인들은 시민들과 상호관계를 구축했다. 때문에 민주적인 분위기와 시스템 안에서 '정치 수사학'이라고 말하는 담론을 통한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수사학적 관계는 항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연수, 2009).

20세기 후반을 수사학의 시대라고 한다. 수사학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뿐만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기도 하며 말과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수사학'은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정치 수사학'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는 겉만 번지르르하여 공허한 말, 신뢰성 없는 발언을 가르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언론 보도에서 발견되는 수사학 용어는 정치인에 대한 공격적 비판과 함께 자주 등장하곤 하였다(박성철, 2004).

정치인에게 설득은 모든 활동에 관련이 있고 설득의 중요한 도구는 수사이며 정치수사에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사 선택과 이데올로기는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 잘 다듬어진 수사와 우호적 이데올로기로 좋은 평가를 앞서 받았다고 할지라고 실천과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평가는 뒤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며 성실한 실천의지가 있는 진심을 담은 담론의 표현의 미학에 대한 효과를 한층 끌어올리며 울림을 전하는 이미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이영경, 2011).

5)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TV토론을 분석했으며, TV토론에 대한 유권자 반응을 연구했다. 이 연구자들은 유권자가 토론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점과 TV토론을 통해 정치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Lang & Lang, 1962;Miller & McKuen, 1979). TV토론과 유권자의 선택과의 상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TV토론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경향으로 '후보자의 수사(rhetoric)'연구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들의 토론이 바로 말(speech)과 주장(argument) 그리고 논쟁(debat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극히 기초적인 관심에서이다. TV토론은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즉 대상이 있는 논쟁이다.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대상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화법, 메시지, 비언어적 상징과 표현, 이미지를 통제한다. 따라서 후보자의 토론전략과 메시지 구성은 '후보자의 수사' 영역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이남기, 2001).

툴리스(Tulis, 1987)의 '수사적 대통령제(rhetorical presidency)'[7]논의 이후 정치 수사학의 입장에서 대통령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의 영향력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학문적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근래의 미디어 시대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설득의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며 최고 통수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유창한 화법을 필수조건으로 만들었다. 끊임없이 대중에 노출되고 정치적 사활에 필수인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호감을 살만한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대통령들에게 제약인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다(곽중철, 2003).

수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상징의 이용을

7) 미국의 정치학자 툴리스(Tulis, 1987)는 그의 저서 The Rhetorical Presidency를 통해 '수사적 대통령제(Rhetorical Presidency)'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은 대통령의 다른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직의 핵심적 업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현대 대통령의 리더십은 공중에게 알리는 것(going public)에서 출발한다. 공중에게 알리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변호(apologia)'는 대국민연설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이귀혜, 2007).

의미하는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설득이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수사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이남기, 2001).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고와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득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효과적인 수사적 전략과 방법을 창조한다. 그리고 대통령후보자들의 수사는 후보자의 이미지 전략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형성하게 된다(이남기, 2001).

미디어의 성장은 대통령(후보자)의 스피치나 수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후보자)들은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 구성의 변화를 추구한다. 메시지의 내용, 형식, 문장의 길이, 은유와 상징의 사용, 공격과 방어 등은 미디어가 요구하는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진다(이남기, 2001).

최초의 TV토론이었던 1960년 케네디와 닉슨 간의 토론 이후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학적 토론전략연구는 1980년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분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마텔(Martel, 1983, pp 62 ~ 73;송종길, 2004 재인용)이 1980년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용된 '공격(attack)', '방어(defence)', '팔기(sell)', '무시(ignore)', '나도 마찬가지(me too...me better)'라는 5가지 토론전략(relational strategies)으로 유목화(송종길, 2004)한 연구였다.

프리덴버그(Fridenberg)는 1960년대 이후 개최되었던 TV토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은 첫째,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둘째, 상대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셋째, 자신의 현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형시키며, 넷째, 상대방의 현존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변형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Fridenberg, 1997;1998;이남기, 2001 재인용).

대통령후보자의 다양한 이미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수사(talk)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말하기 능력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 TV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말하기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말하기 통해 이미지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의 비유는 후보자 자신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TV토론을 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한 이런 점을 이용하여 표심으로 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후보자의 목표일 것이다. 긍정적 표현 사용으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표현,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부정적 표현의 사용은 상대후보의 정책 및 개인적인 약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권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표심을 낮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이미지강화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이미지강화전략이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박동환, 2012). 이미지강화전략도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변인임은 틀림없다.

대통령 수사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연설, 토론, 취임 및 이임사, 기자회견, 위기시 성명 등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에서 관심이 커졌다.

대통령 수사학에 대한 연구의 발전은 현대 선거캠페인에서의 수사학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선거캠페인에서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말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슈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은 후보자의 특별한 수사를 요구한다. 후보자는

점점 더 대중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는 수사를 구사하며, 다양한 수사적 전략과 전술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이남기, 2001).

6) 베노이트 기능이론

베노이트는 자신의 이미지회복전략(1995)과 베노이트와 웰스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수사학적 전략(1996)의 이론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토론이나 정치광고 그리고 정치인의 연설에 담긴 캠페인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인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으로 발전시켰다.

(1) 베노이트의 이미지 회복 전략(1995)

수사학의 한 갈래로서 이미지회복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명성이나 평판(reputation)의 하락을 가져오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Benoit, 1995).

수사학자들은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말해왔다. 첫째, 이미지는 강한 자아 개념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동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아 이미지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방어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지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이미지를 뜻하는 에토스(ethos)가 설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박기순, 2000).

'이미지 회복(image restoration)'이란 용어는 베노이트(Benoit, 1995a)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기존에 연구된 유사한

개념들을 추출하여 이미지 회복 전략 이론을 정립했다. 그가 정립한 이미지회복이론들이 가지는 공통된 가정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목표지향적 행위라는 것과 좋은 명성(reputation)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하나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사학 이론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Arnole & Frandsen, 1984;이수범외,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기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회복 전략은 또한 자신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김영욱, 2002).

베노이트(Benoit, 1995)는 이미지 회복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 총체적으로 집대성하여 정리하면서, 수사학에 기초를 둔 세 가지 배경이론으로서 버크(Burke, 1973)의 '죄값치르기[8]'로서의 결정화(purification)이론, 웨어와 링쿠겔(Ware & Linkugel, 1973)의 사과론(Theory of apologia)[9], 그리고 스콧과 라이먼(Scott & Lyman, 1968)의 고전적 설명론(class work on account)[10]을 통합하여 이론화했다. 따라서 이미지 회복 전략은 일군의 사람들로부터 공격 받았을 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언어적(verbal) 혹은 비언어적(nonverbal)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수사학적 비판론(드라마이론, 사과이론)과 사회과학적 전통(고전적 설명론)을 통합

8) 죄값치르기 : 베노이트(Benoit, 1995b)의 수사학적 분류에서 나타나는 "희생"과 "굴욕"으로 발전하였다(이수범외, 2005).

9)사과론(Theory of apologia) : 웨어와 링쿠겔은(Ware & Linkugel, 1973)은 수사학적 자기 방어를 네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부인'전략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과이론의 나머지 전략인 '자기입지강화', '차별화', '초월' 역시 여러 학자에 의해 공격과 자기방어 사이에서 다양한 이미지회복전략으로 구분되었다(이수범외, 2005).

10) 고전적 이론 :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가를 분류한 것이다. 이 이론은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설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목화를 시도하였는데 '변명'과 '정당화'를 이끌어 냈으며, 자신의 행위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김영욱, 2002).

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된 이미지회복 전략은 침묵을 제외하고 부정(denial, refusal), 변명(excuse), 정당화(justification), 사과(apology, concessions)의 네 가지 세부전략으로 나누어진다. Benoit는 이러한 네 가지 세부전략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전략으로 유목화하고 세부전략을 포함시켰다(<표 2>참조).(김영욱, 2003).

기존 수사학 전통이 뿌리 깊은 이미지 회복 전략들은 규범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prescriptive) 경험한 현상들을 그대로 기술(descriptive)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미지 회복 전략을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할 건인가 하는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하지만 조직이나 공인과 그들을 둘러싼 공중들과의 관계에 있어 수용 가능한 이미지 회복 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Coombs, 1999;김영욱, 2003 재인용).

< 표 2 > Benoit(1995)의 이미지회복전략의 유형

구분	해당이미지전략
부인(denial)	단순부정(simple denial) 책임전가(shifting the blame)
책임의 회피 (evading of responsibility)	희생양만들기(provocation) 능력부족(defeasibility) 사고(accident) 좋은의도(good intentions)
사건 충격 최소화 (reducing offensiveness of event)	강화(bolstering) 최소화(minimization) 차별(differentiation) 초월(transcendence) 공격자 공격(attack accuser) 보상(compensation)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	
사과(mortification)	

이러한 수사학적 전통의 이미지회복 전략들은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이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쿰즈(Coombs)를 들 수 있다. 쿰즈(1999)는 기업의 위기관리라든지, 조직(혹은 공인)과 공중과의 관계형성과 관련한 이미지회복전략을 구분하고 위기의 종류에 따른 가능한 이미지회복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위기상황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일곱 종류의 명성회복 전략을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공격자 공격(attack the accuser), 거부(denial), 변명(excuse), 정당화(justification), 환심사기(ingratiation),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 사과(full apology)를 말한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사회학 연구 분야에서 언어적 자기방어(verbal self-defense)를 설명하고자 했던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 1970년 버크, 1973년 웨어와 링구겔, 1968년의 스콧과 라이먼은 언어적 이미지 구축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이론적 기초에서 상호교류 없이 연구를 진행했다(이남기, 2001).

1995년 베노이트 는 과거 수사학 연구문헌과 달리 보다 포괄적인 이미지 구축전략을 발전시켰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1990년 파우와 켄스키(Pfau & Kenski)가 맥과이어(McGuire)의 정치광고에 대한 이론을 차용해 이미지 연구를 수행했다. 파우와 켄스키는 정치 후보자에 대한 접목적인 접근을 주장하면서, 정치캠페인은 극히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92년 제미슨(Jamieson)은 정치 캠페인에 나타난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연구했다.[11]

11) 1992년 Jamieson은 정치적 공격에 대한 10가지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대응공격(counterattack), 예방(innoculation 예상되는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것), 틀 다시 짓기(reframing 공격적 메시지의 의미를 긍정적이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 분노하기(taking umbrage), 유머러스하게 넘기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기, 동의하지 않기,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등이다.

(2) 베노이트와 웰스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수사학적 전략(1996)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 1996)는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차원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텔레비전 토론 같은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정체성 목적(identity objectives)이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정체성(identity)을 설득적 공격과 설득적 방어라고 하는 2가지 차원으로 규정하였다. 즉 설득적 공격은 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이미지(명성, 체면,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메시지이며, 설득적 방어는 공격 받은 후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 혹은 교정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다(송종길, 2004).

① 설득적 공격과 수사학적 전략

설득적 공격은 한 사람과 집단 혹은 조직의 이미지(명성, 체면,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메시지이다(Benoit & Wells, 1996, p.24). 수사학의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네 가지 모티브 중 하나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파괴적인 수사나 담화(discourse)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Fisher, 1970;송종길, 2004 재인용). 하지만 설득적 공격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고 관련문헌도 많지 않다.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 1996)는 설득적 공격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설득적 공격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즉 부정적으로 인지된 행위와 그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비난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지만 수

용자들이 그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인식도 하지 않는다면 설득적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송종길, 2004).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 1996, p.30~34)는 행위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토론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어떤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다 확장시켜 버리는 것, 둘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 셋째, 잘못된 행위의 근시성 또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 넷째, 행위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 다섯째,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을 강조하는 것, 여섯째, 행위자의 말과 행위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것, 마지막으로, 잘못된 행위의 부정적 효과가 수용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송종길, 2004).

다음으로 행위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5가지 수사적 토론전략이 있다. 첫째, 행위의 의도성을 부각시키는 것, 둘째, 행위의 계획성을 부각시키는 것, 셋째, 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강조하는 것, 넷째,

<표 3> 설득적 공격의 범주와 전략

범주	전략
-상황이나 현실의 총체적 부정성을 강조. -구체적인 근거, 증거 제시 없이 부정적 결과를 강조.	-일반적 부정(negative general)
-잘못된 행위의 강조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지속성, 현재성 또는 근시성을 강조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을 강조 -책무관련성을 강조 -말과 행위의 불일치성을 강조 -수용자와 관련된 잘못된 결과나 손상을 강조
-행위의 책임성 강조	-행위의 의도성, 계획성을 강조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 및 인지가능성을 강조 -유사한 행위의 과거 수행성 또는 반복성을 강조 -잘못된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을 강조

출처 : Benoit & Wells, 1996, pp. 29~36

행위자가 유사한 행위를 과거에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다섯째, 잘못된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Benoit & Wells, 1996, p.34)(<표 3>참조).

② 설득적 방어와 수사학적 전략

설득적 방어는 설득적 공격을 받은 후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 또는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메시지이다(Benoit & Wells, 1996, p.24). 그러나 설득적 방어는 예상되는 공격으로부터 발생될 잠재적인 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남기, 2001). 그동안 커뮤니케이션과 수사학 그리고 사회학의 영역에서 언어적인 자기 방어를 설명하는 몇몇 연구(Burke, 1970;Ware & Linkugel, 1973;Scott & Lyman, 1968)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미지 복원전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베노이트(Benoit, 1995, pp. 41~47)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5가지의 이미지 복원 전략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송종길, 2004).

첫째, 잘못된 행위로 인해 공격받은 사람은 잘못된 행위를 단순히 부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전략은 4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비난의 대상의 전환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도발/공분조성', 책임회피의 또 다른 형태는 '무효화 또는 실행불가능성 강조' 전략, 잘못된 행위가 우연히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전략, 특정 행위가 선의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셋째, 행위의 잘못됨이나 사건의 공격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터는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행위의 공격성이나 오류의 정도를 축소하려 한다. 이 전략은 6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수용자의 부정적 감정

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키거나 긍정적 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지',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는 것, 공격받은 사람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특정행위를 더욱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초월', 공격하는 사람을 반대로 공격하는 역공격, 마지막으로 보상의 전략이 있다. 넷째, 이미지 복원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은 교정행위이다. 교정행위의 약속은 현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교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음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수용자가 행이자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인정이 진솔하다 여길 경우, 잘못된 행위를 용서할 것이다(이남기, 2001)(<표 4>참조).

<표 4> 수사학적 방어 범주와 전략

범주	전략
부정(denial)	-단순 부정, 비난 돌리기
책임의 회피	-공분조성(provocation), 실행불가능성의 강조, 우연성의 강조, 선의의 강조
사건의 부정성의 축소	-지지/보강, 최소화, 역공격, 차별화, 초월/승화, 보상의 제시
교정적 행위의 제시	-
인정과 굴복	-

출처 : Benoit & Wells, 1996, p.48

(3) 베노이트의 기능이론(1999)

베노이트의 분석틀은 미국에서 후보자 TV토론의 정치담론분석, 정치광고, 정치인의 공식연설을 분석하는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국내 연구자들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수사학자인 베노이트는 텔레비전 토론이나 정치광고 그리고 정치인의 연설에 담긴 캠페인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을 제기하면서, 후보자가 구사한 수사의 기본적인 목

적을 주장(acclaim), 공격(attack), 방어(defense)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1999a · b, 2001a · b, 2002; Benoit & Currie, 2001; Benoit & Harthcock, 1999; Benoit, Blaney & Pier, 1998; Brazeal & Benoit, 2001; Reber & Benoit, 2001).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 of political campaign discourse)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주목하거나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지지를 표시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정치후보자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단지 당선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유효표를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캠페인을 통해 상대 후보를 유권자가 선호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후보들이 제시하는 혜택이나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치적 메시지는 보다 혹은 덜 유권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Benoit & Currie, 2001; Benoit & Harthcock, 1999; Benoit, Blaney & Pier, 1998;Reber & Benoit, 2001;전영란, 2007 재인용).

최근의 TV토론의 내용분석에는 베노이트(Benoit)가 정립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TV토론에서 전개된 후보들의 설득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베노이트의 토론 내용을 정치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과 주제(정책, 인간적 특성)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후보 간의 TV토론(김춘식외, 2004; Benoit & Brazeal, 2002; Benoit & Currie, 2001), 공식석상에서의 정치인 연설(Benoit, 1999b), 정치광고(김춘식, 2003; Benoit, 1996a, 2000, 2001; Benoit, Pier & Blaney, 1997; Brazeal & Benoit, 2001) 등의 내용분석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베노이트는 정치 캠페인 수사의 목적으로 주장(acclaims), 공격(attacks), 방어(defenses)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주장은 자신이 공

직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언급이며, 후보자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자기표현(positive self-presentation)'인 경우에 주장으로 분류하였다. 공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이나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하였다. 방어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추가 자료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밝히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혹은 반박(rebuttals)에 관한 언급으로 후보자가 상대방의 공격이나 의혹 제기에 대항하여 이미지 혹은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하였다(Benoit, 1999b).

① 주장

표현적인 토론 행위의 주요한 목적은 후보자의 감정과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장은 후보자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언급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투표하기 위한 이유를 제공한다. 주장은 노벨상 수상자나 신기록을 작성한 육상선수의 소감, 기타 성공 사례담과 같은 스피치 행위 분석에 파멜라 베노이트(Pamela Benoit, 1997)가 사용했다. 그녀에 따르면 주장은 화자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자기표현(positive self-presentation)'으로 정의되며, '책임감 증대와 행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김춘식·전영란, 2005).

기존 연구를 토대로 주장의 유형을 베노이트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factual acclaims),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가치적 주장(value acclaims), 그리고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정책적 주장(policy acclaims)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Benoit & Harthcock, 1999). 사실적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주장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진술문의 형태가 사실적 주장

인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적 주장은 주어진 대상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결론짓는 진술문이다. 객관적 검증으로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진실여부가 판단된다. 정책적 주장은 주어진 주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진술문으로 진실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다(전영란, 2007).

베노이트(Benoit & Harthcock, 1999)는 주장의 기능을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praise)',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자랑(boast of)',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상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권유(tout)'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수사를 분석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부분의 논증가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다(김광수, 1995;임태섭·김광수, 1993;전영란, 2007).

② 공격

갈등 혹은 다른 견해의 표출인 공격은 경쟁 입장에 있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이나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언급이다. 공격은 비도덕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지만(Garramone, 1984;김춘식·전영란, 2005 재인용), 유권자를 위협하여 두려움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Surlin & Gordon, 1997;Joslyn, 1986;Kern, 1989;김춘식·전영란, 2005 재인용).

공격의 유형을 비방(흑색선전), 주관적 공격, 사실적 공격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김광수, 1995;김춘식, 2003). 비방은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 비방 또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정도의 표현이

다. 주관적 공격은 주관적,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내용이나 의견이다. 흑색선전은 아니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사실적 공격은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혹은 상식이나 추론,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공격한다(전영란, 2007).

베노이트는 공격의 기능을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비판인 비평(criticize)과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비난(condemn)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미국 대통령후보들의 정치수사를 분석했다(Benoit & Harthcock, 1999). 공격 대상이 된 후보자는 특정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후보 자체, 소속 정당, 같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정치 세력 등에 대한 공격 모두를 포함한다(전영란, 2007).

③ 방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방어(defense, refutation of attacks)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혹은 반박과 관련이 있다(Cooper, 1960;전영란, 2007 재인용).

방어는 주관전 방어와 사실적 방어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Benoit, 1999b). 주관적 방어는 상대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발언 내용이다. 사실적 방어는 공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언급의 형태이다(전영란, 2007).

베노이트는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부정·단순부정(denial, simple denial)하는 전략은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한다. 둘째, 책임회피·전가(shifting the blame, evade responsibility)하는 전략은 자신의 책임은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긴다. 셋째, 차별화(differentiation)전략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강조한다. 넷째, 전이·초월(transcendence)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승화시켜 대중의 관심을 다른 유리한 맥락에서 해석하게 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폐기(defeasibility)는 정보의 부재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고려하는 전략이다. 여섯째, 인정·굴복(mortification)전략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일곱째, 최소화(minimization)전략은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한다(Benoit & Harthcock,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후보자가 어떠한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을 펼치는지 분석하였다.

기능	유형	전략
주장 (acclaims or positive utterances, self-praise)	사실적주장	·칭찬(praise) ·자랑(boast of) ·권유(tout)
	가치적주장	
	정책적주장	
공격 (attacks)	사실적공격	·비평(criticize) ·비난(condemn)
	주관적 공격	
	비방	
방어 (defences)	사실적방어	·단순부정(simple denial) ·책임전가(shifting the blame) ·차별화(differentiation) ·상황초월(transcendence) ·폐기(defeasibility) ·굴복(mortification) ·최소화(minimization)
	주관적방어	

<표 5> 출처: Benoit & Harthcock(1999)을 참조로 작성.

2. TV토론에 관한 연구

1) 후보자 TV토론

특정한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전달될 때, 미디어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의미와 설득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미디어는 메시지 내용을 초월하여 매체 자체로서의 강력한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맥루언의 주장은 미디어 정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다(전영란, 2007). 특정 매체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소통의 목적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매체는 존재한다. '권력은 텔레비전에서 나온다' 는 표현은 정치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김우룡, 1998).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대통령후보자 토론회는 1858년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링컨과 더글러스 간의 토론이다.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활발히 개최되었다. 1960년은 TV토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이다. 대통령후보인 닉슨(Nixon)과 케네디(Kennedy)가 처음으로 TV토론(Great Debate)을 펼치면서 TV토론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미디어 정치 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전영란, 2007).

우리나라의 TV토론 문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을 선거 캠페인의 수단으로 고려하였으나 법적 제약과 후보 간의 합의가 불성립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마침내 19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에 TV토론이 도입되어, '미디어 선거'로 진일보하게 되었다(전영란, 2007).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TV토

론회가 도입되었으며, 당시 공영방송사 주관 TV대담·토론회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여 TV합동토론회를 실시하면서 매스미디어 선거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97년 대선 후보자 간 합동 TV토론은 12월에 중앙선관위 주최로 세 번의 TV토론이 열렸으며, 당시 평균 시청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TV토론에서 선전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TV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미디어 선거를 확고히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 시 · 군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만이 토론회에 임할 수 있다.

선거캠페인에 관련된 법을 제도화하여 미디어 중심의 선거를 추진하고, 이러한 정책은 비효율적인 고비용의 동원집회 등으로 인한 과거의 폐단을 해소함으로써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디어 선거의 강화로 합동토론회, 정당연설회 등은 폐지되었고, 정치인과 유권자의 직접적인 만남은 매스미디어의 중개된 만남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사회는 정치개혁의 시대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미디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TV토론이 선거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김영주 · 김춘식, 2006).

2) TV토론 효과

TV토론에서 정치후보자는 자신의 정책이나 인간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려 한다(Ansolabehere et al., 1993;Trent & Friedenberg, 2000;전영란, 2007 재인용). 정치후보자는 언어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거 상황에서 발생하는 TV토론의 기능과 기대효과는 다음의 여덟 가지로 이루어진다(Trent & Friedenberg, 2000;전영란, 2007 재인용). 첫째, TV토론회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선거기간동안 유권자가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반면, TV는 저비용 고효율로 광범위하게 유권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다.

둘째,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정도를 더욱 강화한다.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 이미 지지후보가 있는 경우,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어 보다 더 자신의 지지를 공고히 한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신의 기대를 확인하고 굳히는 경향은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셋째, 제한된 수의 유권자만이 지지후보를 변경한다. 기존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던 유권자가 TV토론이나 다른 캠페인을 통한 메시지의 지속적인 노출에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후보를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표명 의지를 확고히 한다. 1997년의 제 15대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끝난 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회창 후보자는 하락세, 김대

중 후보자는 보합세, 이인제 후보자는 상승세로 나타났다. 이회창 후보자를 지지하던 서민층과 젊은층이 김대중 후보자와 이인제 후보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권자 의제설정(voter's agenda setting)에 도움을 준다. 미디어는 뉴스 가치가 높은 대통령 선거과정을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미디어에서 프라임 타임 대에 1~2시간에 걸친 편성으로 전국에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된다. 미디어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 비중있게 다루는 의제는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의제로 결정된다.

다섯째,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지식수준을 높인다.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비교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유권자의 지식을 늘려준다. 후보자들은 토론회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여섯째, 후보자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TV를 통해 방영되는 토론회는 후보의 언어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비언어적인 측면인 후보의 생김새, 의상, 말투, 몸짓,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질문을 받았을 때의 표정, 응답할 때의 자세, 공격받았을 때의 반응들이 마치 유권자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된다. 최근에는 선거과정이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이미지 정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곱째, 토론회 종료 시까지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캠페인을 특정 단계에 머물게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일 전 3차례에 걸쳐 대통령합동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 토론 차수별로 주제 및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인간적인 측면 모두 학습하기 위해서는 3차례의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덟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투표행위로 표출된다. 유권자들은 주로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언론의 선거보도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TV토론회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후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태도의 강화, 선거 관련 지식 습득 또는 학습, 정치 참여 증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송종길 · 박상호, 2009;이준웅, 2003).

베노이트와 그 동료들은(Benoit et al. 2002;임성학, 2013 재인용) 미국 예비선거와 본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정책 이슈 지식(issue knowledge)수준과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에 대한 지각 수준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입장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성학(2013)은 TV토론회는 유권자 의제설정 기능(agenda-setting)도 갖고 있으며, 후보자의 성격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변화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 선호(vote preference)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즉, TV시청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자간에 다양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3) TV토론형식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TV토론형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TV토론회에서 토론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론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용성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 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의 토론형식은 기조연설, 국민공모질문, 사회자공통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구분한다.

<표 6> 역대 대통령선거 TV토론형식

년도	토론일시	토론형식						
1997년 제 15대	1차 : 12월 1일 2차 : 12월 7일 3차 : 12월 14일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1:1:1)	마무리 발언			
2002년 제 16대	1차 : 12월 3일 2차 : 12월 10일 3차 : 12월 16일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1:1:1)	양자토론 (1:1)	마무리 발언		
2007년 제 17대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1일 3차 : 12월 16일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모두발언	반론	재반론	UCC 질문	마무리 발언
2012년 제 18대	1차 : 12월 4일 2차 : 12월 10일 3차 : 12월 16일	기조연설	국민공모질문	사회자공통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기조연설은 첫 번째 연설이자 토론회의 시작이다. 후보자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선거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피력한다. 주로 정치적 포부와 이상과 관련하여 자신만이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임을 강조한다. 예전의 기조연설은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인간적인 면보다는 정책제시를 중요시 하였다.

이번 제 18대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로 대선후보에게 던질 '국민 질문'을 공모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와 제 18대 대선 홍보사이트(http://vote.necpr.go.kr), 모바일 웹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공모

주제는 정치, 통일·안보, 외교 분야, 경제 분야, 복지, 노동, 환경 분야,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등으로 주제별로 대선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의 질문으로 정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모된 질문 중 가장 많은 공통 질문 중 일부를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에게 물었다. 1차 토론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방안', 2차 토론에서는 '복지정책 실현방향', 3차 토론에서는 '교육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회자공통질문은 사회자가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각 후보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단순 답변만 허용되고 상대후보에 대한 반론의 형식은 없었다. 사회자공통질문은 각 차수별로 4차례씩 진행되었으며, 1차 토론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쉽',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2차 토론에서는 '위기관리 능력', '경기침체 대책','경제민주화 실현방향',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3차 토론에서는 '국정 비전 제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이 질문되었으며, 대다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질문되었다.

후보간 상호토론은 특정 후보가 정해진 시간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대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형식이다. 제 18대 대선 TV토론에서는 사회자공통질문이 끝나면 후보간 상호토론이 이어졌는데, 정해진 후보자의 순서에 따라 1분 질문 후 1분 30초간의 답변이 이어졌다. A후보자질문 → B후보자답변 → B후보자질문 → A후보자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은 국민공통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진행되는데, 세 후보를 일대일(A : B, B : C, C : A)로 하여 각 3분씩 6분간 반론,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난 제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A후보자발언 → 다른 모든 후보자 반론 → A후보자 재반론의 형식과 차이점을

보인다.

마무리발언은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발언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에게 자신의 마지막으로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시간이다.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의의를 지닌다.

4) 토론주제

토론회에서 어떤 주제가 다뤄지는가에 따라서 토론회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선거에서는 의제설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제적 · 국가적 현안이 중심이 되어 의제가 설정된다.

토론 의제는 미디어 의제(매스미디어가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와 후보자 의제(정치후보자가 토론에서 다뤄지기 바라는 것), 유권자 의제(여론을 반영하는 것) 등이 있으며, 토론에서는 모두 반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미디어와 후보자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성향이 크다.

이번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주제를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국민공모질문(정치 쇄신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2차 토론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국민공모질문(복지정책의 구체적 실현), 3차 토론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국민공모질문(교육제도 개선방안),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토론 차수별로 후보자의 대통령 리더쉽, 국가를 이끌 역량, 국가비전 등을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추가하였으며, 국민질문은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하였다.

Ⅲ. 선행연구검토

TV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7년 이후부터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TV토론을 제도화의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 형식 마련을 위한 논의와 유권자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한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TV토론에 대한 미디어효과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TV토론이 유권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측정하려는 연구도 나타났다.

1. TV토론 수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TV토론의 수사학적 연구는 대부분 TV토론, 연설, TV정치광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후보자의 토론 전략 분석 및 후보자의 수사와 관련 유권자의 반응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TV토론의 수사학적 연구는 주로 정치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을 유형화하여 주제나 형식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TV토론의 수사학적 내용분석 연구는 베노이트의 분석틀에 많이 의존한다.

최초의 TV토론이었던 1960년 케네디와 닉슨 간의 토론이후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학적 토론전략연구는 1980년 대통령후보 TV토론을 분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마텔(Martel, 1983)이 1980년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용된 '공격(attack)', '방어(defence)', '팔기(sell)', '무시(ignore)', '나도 마찬가지(me too...me better)'라는 5가지 토론전략(relational strategies)으로 유목화한 연구였다. 마텔은 토론전략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 같은 토론전략을 이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전략(substance strategy)도 제시하였다(송종길, 2004).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 1996)는 1992년 부시, 클린턴, 페로 간의 TV토론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후보자에 따라 선호하는 설득적 공격과 방어 전략이 다르고 현직대통령이 타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직대통령 부사가 클린턴, 페로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음으로써 주로 방어의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노이트와 하스콕(Benoit & Harthcock, 1999)은 1960년 미국의 닉슨과 캐네디의 TV토론 기간동안의 기조연설, 수락연설, TV광고를 기능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후보자들은 주장, 공격, 방어를 다양한 형태의 수사적 전략으로 사용하였고, 주장은 후보자의 지지도를 증가, 공격은 상대방의 지지도를 감소, 반면 방어는 상대의 공격에서 후보자를 바람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결론내고 있다.

베노이트와 아이네(Benoit & Airne, 2005)는 기능이론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역대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부정적인 담론보다 긍정적인 담론을 더 많이 구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60년 닉슨과 캐네디의 토론회 경우 후보자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언급이 49%로 절반에 가까웠고,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공격은 39%, 방어는 12%였다(Benoit & Harthcock, 1999). 1988년 부시와 듀카키스의 토론 또한 주장이 59%, 공격 33%, 방어 8%의 순으로 주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Benoit & Brazeal, 2002).

미국의 경우 후보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TV토론회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97(주장 61%, 공격 29.1%, 방어 9.6%)(김춘식·전영란, 2006)년과 2002년(주장 61.6%, 공격 27.6%, 방어 10.9%)(김춘식외, 2004)의 대통령선거 모두 후보자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주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송종길, 2004).

이남기(2001)와 송종길(2004)은 제 15대, 제 16대 대통령후보 TV토론을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수사적 토론 전략을 설득적 공격 전략과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후보자에 따라 수사학적 공격과 방어 전략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지만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긍정적인 언급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론회다운 후보자 들 간 충돌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선(2003)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 TV합동토론회를 대상으로 각 후보들의 언술 속에 드러난 선거 전략을 분석하였다. 후보자들의 정책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 분석 접근이 아닌, 각 후보들의 담화를 기초한 언술전략에 집중되었다. 후보자가 속한 당과 후보자의 관계, 후보자와 경쟁후보들과 관계,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례, 당과 후보와의 관계의 양식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김인영 · 강태완(2003)은 제 15대, 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구사하는 언어 메시지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논증 전략을 분석하였다. 후보자들이 주어진 선거 쟁점에서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제기하는지를 분석하고, 주장을 통해 드러나는 논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툴민(Tulmin, 2003)의 분석틀을 적용, 논증을 사실, 주장, 논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5대 후보자들은 당시 IMF경제상황과 맞물려 잘못

된 정치상황에 초점을 맞춘 쟁점유형이 많았고, 16대 후보자들은 지속성과 심각성의 필수 쟁점 유형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춘식 · 전영란(2004;2005;2009) 2002년 대통령후보 TV토론회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후보 TV토론회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 선거 TV토론회를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후보자들이 언급한 정치수사와 후보자들의 수사에 관한 신문보도가 어떠한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TV토론은 후보자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언급이, 그리고 이게 관한 신문 보도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반박하는 언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김춘식 · 전영란(2006;2007)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과 역대 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선거 후보자들이 언급한 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과 주제(정책, 인간적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의 수사 목적은 후보자 모두 자신의 정책이나 인간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주장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격과 방어의 순이었다. 후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회창 후보는 방어에, 김대중 후보는 주장에, 그리고 이인제 후보는 주장과 공격에 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후보자의 주장, 공격, 방어에 관한 언급은 주로 인간적 특성보다는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세 후보 모두 마찬가지인 것을 나타났다.

이수범 · 우정민 · 신동숙(2007)은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설득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TV토론 6회를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토론 전략을 분석하였다.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의 수사학적 공격과 방어 전략을 분석틀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되는

후보자들의 이슈전략, 그리고 TV토론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지율에 따른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의 빈도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설득적 공격과 방어 시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있어서는 일부 유목에서 두 후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공격과 방어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격보다는 방어 시 비언어적 메시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관규 · 박연진(2007;2011)와 김관규 · 김춘식(2008)은 2006년, 2010년 서울시장 후보 TV토론과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이 후보 지지도와 토론형식에 따라 후보 간의 설득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격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지지도가 높은 유력후보들은 실질적인 경쟁 후보를 대상으로 공격 전략을 펼쳤다.

김연종(2009)은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TV방송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3개 토론회를 통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노이트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후보자 언술의 주장, 공격,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방송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선거방송토론회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토론의 내용과 활기가 부족하였으며 토론 시간, 공간, 방청객 제한, 토론참여자 토론미숙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살펴본 바와 같이, TV토론의 수사학적 내용 분석은 베노이트(Benoit)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주장, 공격, 방어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토론의 내용분석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서 후보자들 간의 충돌만으로 토론회를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후보들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의 분석 이외에 토론 내용이 유

권자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TV토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TV토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유권자의 인지 변화와 후보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투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강형(2004)은 2002년 제 16대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후보의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가지는 개별 감정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후보와 유권자 사이의 이슈 근접성(issue proximity)이 후보 이미지 지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 연구는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먼저 탐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후보 이미지 변화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정성호(2003)는 제 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대상으로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TV토론에 나타난 메시지는 유권자의 해석과정을 거쳐 후보자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TV토론이 후보자의 이미지 유형 및 이슈관련 중요도의 인지의 변화를 가져오고, TV토론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후보자의 호감도에 상당한 영향을 치쳤으며, TV토론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호감도는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김관규 · 구교태 · 이준웅(2006)의 2006년 서울시장 후보들의 TV토론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토론의 효과가 모든 후보에 대해 그리고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관심도가 낮은 유권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이 변함없이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후보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향상시키고, 호감도의 변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의도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TV토론 형식(format)에 관한 연구

다양한 토론형식은 TV토론에 있어 유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토론 형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이 연구는 주목한다.

이진로(2003)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TV토론 포맷에 관한 연구에서 TV토론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토론회와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의 토론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결을 강화하는 포맷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보자의 답변 회피 등에는 토론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참여 후보자의 정책 지향 여부를 즉시 평가하면 정책 토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송종길(2003)은 2002년 제 16대 대통령후보 TV토론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연구하였다. 대통령후보 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

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새로 도입된 후보간의 1:1 직접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 작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종희 · 오지양(2011)은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를 중심으로 후보자 TV토론회 토론포맷을 연구하였다. 지상파 방송 3사 주관 토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의 형식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비교 · 분석하고 후보자 TV토론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형식 분석은 토론회 기본구조, 참석자 수, 사회자의 역할, 화면구성 등 토론 전반적인 구성에 관한 분석이 행해졌으며, 내용분석은 토론회 녹취록 분석을 통한 토론주제, 진행 포맷, 후보자의 발언 및 주장의 성격 등의 분석이 실시되었다.

Ⅳ.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텔레비전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TV토론에서의 수사와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TV토론 내용에서 후보자의 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과 주제별, 토론 형식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수사학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캠페인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치수사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베노이트의 정치캠페인 수사분석틀을 사용했다(Benoit, 1999a, 1999b, 2000, 2001a, 2001b; Benoit & Brazeal, 2002; Benoit & Curie, 2001; Benoit & Harthcock, 1999; Benoit, Pier & Blaney, 1997; Brazeal & Benoit, 2001;김춘식, 2007 재인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주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공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별 공격대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4]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방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는 주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는 토론 형식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적 기법인 비유적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연구문제 4-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비유적 표현에서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시행된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를 분석하기 위해, 방송 3사(KBS, SBS, MBC)에서 총 3회 시행된 TV토론회를 시청 후 녹취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 방법은 토론회 내용을 베노이트의 기능이론에 유목화하여 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012년 12월 4일, 10일, 16일에 개최된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회 3회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제공되는 토론회 영상물과 해당녹취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후보자별로 발언 내용을 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과 비유로 구분하여 내용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후보자의 발언을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에 따라 의미와 주제로 구분하였다. 후보자의 발언 중에 동일한 수사의 유형과 전략 등이 보일 때는 하나의 분석단위로 처리하였다.

3) 분석유목

(1) 수사의 목적

후보자의 캠페인 수사의 목적 및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베노이트가 사용한 분석유목을 사용하였다. 베노이트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언어적 메시지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주장(acclaims), 공격(attacks), 방어(defenses)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1999a · b, 2001a · b, 2002; Benoit & Currie, 2001; Benoit & Harthcock, 1999; Benoit, Blaney & Pier, 1998; Brazeal & Benoit, 2001; Reber & Benoit, 2001). 주장은 자신이 공직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언급이며, 후보자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자기표현(positive self-presentation)"인 경우에 주장으로 분류하였다. 공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에 적합하지 않은 정당이나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하였다. 방어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추가 자료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밝히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혹은 반박(rebuttals)에 관한 언급으로 후보자가 상대방의 공격이나 의혹 제기에 대항하여 이미지 혹은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Benoit, 1999b).

주장과 공격, 방어는 기능에 따라 사실적(factual), 가치적(value), 정책적(policy)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세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이용된다(Benoit & Wells, 1996).

① 주장(acclaims)

주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추진할 일들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언급을 의미한다. 주장의 유형을 사실적 주장(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제시), 가치적 주장

(주관적 판단이 개입), 정책적 주장(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주장)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김광수, 1995; 김춘식, 2003). 또한 주장의 구체적 전략은 칭찬(praise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함), 자랑(boast of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권유(tout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상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Benoit & Harthcock, 1999).

② 공격(attacks)

공격은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상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추진할 약속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언급이다. 공격의 세부 유형은 비방(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 비방에 가까운 표현), 주관적 공격(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 사실적 공격(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김광수, 1995; 김춘식, 2003). 공격의 전략은 비평(criticize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비판)과 비난(condemn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행위)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Benoit & Harthcock, 1999). 그리고 공격의 전략 중 비평, 비난이 배제된 단순정책질의 대해서는 “정책질의”의 전략을 추가하여 총 세 가지로 공격 전략을 나누었다.

③ 방어(defenses)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또는 반박에 관한 언급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이다. 방어의 유형은 사실적 방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어)와 주관적 방어(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방어)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김춘식, 2003). 방어에 사용된 전략은 단순부정(simple denial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하는 전략), 책임전가(shifting the blame 비난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리는 전략), 차별화(differentiation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강조하는 전략), 상황초월(transcendence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가치로 승화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게끔 하는 전략), 폐기(defeasibility 정보 부재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고려한 전략), 굴복(mortification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칭하는 전략), 최소화(minimization 잘못된 행위나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곱 가지로 구분했다(Benoit & Harthcock, 1999).

본 연구에서는 베노이트의 방어 전략 일곱 가지(Benoit & Harthcock, 1999)[12] 외에 Benoit(1995)[13]의 설득적 방어의 전략의 분석 유목 중 역공격(attack accuser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역공격하는 것을 말함),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 이미지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은 잘못한 행위를 고치겠다는 약속임. 교정적 행위란 이처럼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전략)의 두 가지 전략을 추가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전략인 동문서답[14]도 추가하였다(<표 7> 참고).

---

12)Benoit & Harthcock(1999) : 수사 유형을 주장, 공격, 방어로 구분하였으며, 전략으로 주장(칭찬, 자랑, 권유), 공격(비평, 비난), 방어(단순부정, 책임전가, 차별화, 상황초월, 폐기, 굴복, 최소화)로 구분했다.

13) Benoit(1995) : 설득적 방어 전략을 부인(단순부인, 책임전가), 책임회피(희생양만들기, 능력부족, 사고, 좋은의도), 사건의 공격성 축소(입지강화, 최소화, 차별화, 초월, 역공격, 보상), 교정행위, 사과, 기타(단순인사)로 구분하였다.

14) 김연종(2009)의 연구에서는 방어의 전략으로 “딴청(딴소리)”이라는 유목을 포함시켰다.

기능	유형	전략
주장 (acclaims or positive utterances, self-praise)	사실적주장	·칭찬(praise) ·자랑(boast of) ·권유(tout)
	가치적주장	
	정책적주장	
공격 (attacks)	사실적공격	·비평(criticize) ·비난(condemn) ·정책질의
	주관적 공격	
	비방	
방어 (defences)	사실적방어	·단순부정(simple denial) ·책임전가(shifting the blame) ·차별화(differentiation) ·상황초월(transcendence) ·폐기(defeasibility) ·굴복(mortification) ·최소화(minimization) ·동문서답 ·역공격(attack accuser)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
	주관적방어	

<표 7> 출처: Benoit & Harthcock(1999), Benoit(1995) 을 참조로 작성.

(2) 주제 및 토론 형식

토론 주제 및 토론 형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토론 주제, 토론 형식을 분석유목으로 사용하였다. 주제는 정치, 통일·안보, 외교 분야, 경제 분야, 복지, 노동,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토론 형식은 기조연설, 국민공모질문, 사회자공통질문, 후보 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으로 구분하였다.

국민공모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대선후보에게 던질 '국민 질문'을 공모하였다. 이 공모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제18대 대선 홍보사이트,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진행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모 된 질문 중 가장 많은 공통 질문 가운데 일부를 TV 토론회에서 대선후보에게 질문하였다.

(3) 비유법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나타나는 후보자들 간의 비유적 표현의 사용빈도와 자신 또는 타인을 칭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등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비유대상을 본인(본인 또는 본인의 정당), 타 후보(본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 또는 다른 후보의 정당), 기타(본인, 타 후보를 제외한 모든 것)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기본 분석단위를 선정하고, 코더들의 유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로 12월 4일에 방송된 1차 토론회의 영상물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코더(전공 대학원생 2명)와 연구자는 분석단위, 분석유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총 536건의 분석단위로 나누었다(<표 8> 참조). 선정된 분석단위와 분석유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코더들의 훈련을 통해서 신뢰도를 테스트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홀스티(Holsti)공식[15]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15) 홀스티(Holsti)공식 :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가지고 명목적 자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방식.
신뢰도 = 2M/N1+N2

<표 8> 분석 단위

단위 : 건(%)

차수 / 후보자	1차	2차	3차	전체
박근혜	42(27.3)	50(29.1)	100(47.6)	192(35.8)
문재인	48(31.2)	61(35.5)	110(52.4)	219(40.9)
이정희	64(41.6)	61(35.5)	-	125(23.3)
전체	154(100.0)	172(100.0)	210(100.0)	536(100.0)

87%라는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2.0 version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기법으로는 유목의 전체 사용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유목의 관찰빈도와 기대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Ⅴ.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 및 주제, 토론형식 그리고 비유적 표현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시행된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3회를 분석하였다. TV토론에서 보여 지는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를 분석하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 중 1차와 2차 토론의 경우는 토론자가 3명인 다자토론이었으나, 3차 토론회의 경우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1차, 2차 다자토론과 3차 양자토론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의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36건의 분석단위를 선정하고, 수사의 목적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와 같다. 1차, 2차 다자토론의 분석 결과 후보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추진할 일들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언급인 주장은 93건(28.5%)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상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추진할 약속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언급인 공격은 115건(3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또는 반박에 관한 언급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인 방어는 118건(36.2%)로 나타났다(<표 9>참조). 전체적으로

방어(118건, 36.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격(115건, 35.3%), 주장(115건, 35.3%)순이다. 방어와 공격이 0.9%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2.193*). 3차 양자토론의 분석 결과도 방어(89건, 42.4%), 공격(82건, 39.0%), 주장(39건, 18.6%)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3.599***).

<표 9> 후보자별 수사 목적

단위 : 건(%)

차수·후보자 \ 수사목적		주장	공격	방어
1차	박근혜	12(28.6)	10(23.8)	20(47.6)
	문재인	17(35.4)	15(31.3)	16(33.3)
	이정희	15(23.4)	33(51.6)	16(25.0)
χ^2=11.171*				
2차	박근혜	17(34.0)	13(26.0)	20(40.0)
	문재인	18(29.5)	19(31.1)	24(39.3)
	이정희	14(23.0)	25(41.0)	22(36.1)
χ^2=3.321				
전체	박근혜	29(31.5)	23(25.0)	40(43.5)
	문재인	35(32.1)	34(31.2)	40(36.7)
	이정희	29(23.2)	58(46.4)	38(30.4)
	전체	93(28.5)	115(35.3)	118(36.2)
χ^2=12.193*				
3차	박근혜	19(19.0)	23(23.0)	58(58.0)
	문재인	20(18.2)	59(53.6)	31(28.2)
	전체	39(18.6)	82(39.0)	89(42.4)
χ^2=23.599***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급의 공격과 후보자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방어의 사용은 토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별로 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방어(43.5%)가 확연히 높았으며, 주장(31.5%)과 공격(25.0%)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방어(3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장(32.1%), 공격(31.2%) 순이다. 이정희 후보는 공격(4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어(30.4%), 주장(23.2%)순이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방어(58.0%)로 확연히 높았으며, 공격(23.0%)과 주장(19.0%)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공격(53.6%)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28.2%)와 주장(18.2%)순으로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방어(47.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주장(35.4%), 공격(31.3%), 방어(33.3%)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정희 후보는 공격(51.6%)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2차 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방어(4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 또한 방어(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정희 후보는 공격(4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 토론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양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방어(58.0%)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공격(53.6%)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는 토론 진행과 무관하게 방어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문재인 후보는 주장, 공격, 방어를 고루 사용하였고 마지막 양자토론에선 공격에 대한 비중을 확연히 높였다. 이정희 후보도 토론 진행과 무관하게 공격에만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회차별로 살펴본 결과, 야당후보들은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야당후보들은 17대 이명박

정권 관련하여 현 정권과 야당측근비리를 비판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집권 여당 후보는 16대 노무현정권과 관련하여 공격을 하였다. 집권경험이 전무한 소수야당후보는 현집권 여당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과 비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장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 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 삶이 이렇게 어려 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경고가 들리는 이 마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 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고 기득권 싸움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 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토론, 박근혜)

▣ 공격 : 삼성 X파일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 수 부회장에게 지난 97년 신라호텔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 등 에게 정치자금 주자, 이렇게 공모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회창 후보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도 하셨는데요. 삼성이 검사들에게 뇌물 준 것 보고하는 내용도 이 X파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성과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추악한 유착이 드러났고 온 국민 이 분노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 문 후보님께서 참여정부의 삼성장학생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의 큰 처남이신데 당시에 대선자금 배달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에 주미대사 하셨고 X파일 사건으로 사임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요? (2차 토론, 이정희)

▣ 방어 :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 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토론, 문재인)

[연구문제 1-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주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주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는 사실적 주장이 11건(11.8%)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가치적 주장은 54건(58.1%)으로 나타났으며,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정책적 주장은 28건(30.1%)으로 나타났다(<표 10>참조). 전체적으로 가치적 주장(54건, 58.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적 주장(28건, 30.1%), 사실적 주장(11건,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691*). 3차 양자토론에서는 가치적 주장이 (19건, 48.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적 주장이 (17건, 43.6%), 사실적 주장(3건, 7.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가치적 주장(48.3%)과 정책적 주장(48.3%)이 동일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가치적 주

<표 10> 후보자별 주장 유형 및 전략

단위 : 건(%)

주장유형·전략 / 차수·후보자		주장유형			주장전략		
		사실적	가치적	정책적	칭찬	자랑	권유
1차	박근혜	1 (8.3)	7 (58.3)	4 (33.3)	0 (0.0)	3 (25.0)	9 (75.0)
	문재인	2 (11.8)	10(58.8)	5 (29.4)	0 (0.0)	4 (23.5)	13(76.5)
	이정희	3 (20.0)	11(73.3)	1 (6.7)	2 (13.3)	0 (0.0)	13(86.7)
	χ^2값	χ^2=3.704			χ^2=7.644		
2차	박근혜	0 (0.0)	7 (41.2)	10(58.8)	1 (5.9)	2 (11.8)	14(82.4)
	문재인	2 (11.1)	10(55.6)	6 (33.3)	0 (0.0)	1 (5.6)	17(94.4)
	이정희	3 (21.4)	9 (64.3)	2 (14.3)	0 (0.0)	1 (7.1)	13(92.9)
	χ^2값	χ^2=8.519			χ^2=2.483		
전체	박근혜	1 (3.4)	14(48.3)	14(48.3)	1 (3.4)	5 (17.2)	23(89.3)
	문재인	4 (11.4)	20(57.1)	11(31.4)	0 (0.0)	5 (14.3)	30(85.7)
	이정희	6 (20.7)	20(69.0)	3 (10.3)	2 (6.9)	1 (3.4)	26(89.7)
	전체	11(11.8)	54(58.1)	28(30.1)	3 (3.2)	11(11.8)	79(84.9)
	χ^2값	χ^2=11.691*			χ^2=5.150		
3차	박근혜	0 (0.0)	9 (47.4)	10(52.6)	0 (0.0)	1 (5.3)	18(94.7)
	문재인	3 (15.0)	10(50.0)	7 (35.0)	2 (10.0)	4 (20.0)	14(70.0)
	전체	3 (7.7)	19(48.7)	17(43.6)	2 (5.1)	5 (12.8)	32(82.1)
	χ^2값	χ^2=3.559			χ^2=4.277		

* p<.05, ** p<.01, *** p<.001

장(57.1%)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 또한 가치적 주장(69.0%)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정책적 주장(52.6%), 가치적 주장(47.4%)로 유사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가치적 주장(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 세 후보 모두 가치적 주장(박근혜 58.3%, 문재인 58.8%, 이정희 73.3%)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2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정책적 주장(58.8%)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 후보

와 이정희 후보는 가치적 주장(문재인 55.6%, 이정희 6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정희 후보가 불참한 3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정책적 주장(52.6%)과 가치적 주장(47.4%)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가치적 주장(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는 가치적 주장을 펼치다가 토론을 거듭할수록 정책적 주장을 많이 펼쳤고,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토론 회수 상관없이 가치적 주장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주장 유형(사실적, 가치적, 정책적)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실적 주장 :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2009년 3000여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차에서 23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함께 살자 외친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률은 이보다 10배나 높습니다. 23번째 희생자인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회계 조작하고 고의 부도내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 받은 진실만이라도 세상에 알아주면 이렇게 수십 명이 절망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1차토론, 이정희)*

▣ *가치적 주장 :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실패시켜서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 그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자고 결심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 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차토론, 문재인)*

▣ 정책적 주장 : 그래서 저는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이거 지키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만큼 어떤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또 해고 요건도 강화해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70%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3차토론, 박근혜)

주장 전략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세 후보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상대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권유의 사용이 총 79건(84.9%)으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자랑은 11건(11.8%),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은 3건(3.2%)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차 양자토론에서는 권유가 32건(82.1%)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랑
(5건, 12.8%), 칭찬(2건, 5.1%)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자의 주장 전략(칭찬, 자랑, 권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칭찬 :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고죄, 아예 없애고 양형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대폭 늘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대상 아예 공소시효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합의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3차토론, 문재인)

▣ 자랑 : 지금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출발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소통입니다. 저는 인권변호사로 평생 사회와 소통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용산 미군기지 이 전, 청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공사, 원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세력과 통합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연대와 힘을 합쳐 국민후보가 됐습니다. (2차토론, 문재인)

▣ 권유 :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준비된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 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민생정부를 만들겠습니다. (2차토론, 박근혜)

[연구문제 1-2]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공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공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실적 공격이 54건(47.0%)으로

<표 11> 후보자별 공격 유형 및 전략

단위 : 건(%)

공격유형·전략 / 차수·후보자		공격유형			공격전략		
		사실적	주관적	비방	비평	비난	정책 질의
1차	박근혜	5 (50.0)	5 (50.0)	0 (0.0)	3 (30.0)	6 (60.0)	1 (10.0)
	문재인	7 (46.7)	8 (53.3)	0 (0.0)	7 (46.7)	5 (33.3)	3 (20.0)
	이정희	16(48.5)	9 (27.3)	8(24.2)	8 (24.2)	22(66.7)	3 (9.1)
	χ^2값	χ^2=8.386			χ^2=4.769		
2차	박근혜	7 (53.8)	6 (46.2)	0 (0.0)	9 (69.2)	2 (15.4)	2 (15.4)
	문재인	7 (36.8)	12(63.2)	0 (0.0)	14(73.7)	4 (21.1)	1 (5.3)
	이정희	12(48.0)	9 (36.0)	4 (16.0)	5 (20.0)	20(80.0)	0 (0.0)
	χ^2값	χ^2=7.351			χ^2=23.164***		
전체	박근혜	12(52.2)	11(47.8)	0 (0.0)	12(52.2)	8 (34.8)	3 (13.0)
	문재인	14(41.2)	20(58.8)	0 (0.0)	21(61.8)	9 (26.5)	4 (11.8)
	이정희	28(48.3)	18(31.0)	12(20.7)	13(22.4)	42(72.4)	3 (5.2)
	전체	54(47.0)	49(42.6)	12(10.4)	46(40.0)	59(51.3)	10(8.7)
	χ^2값	χ^2=16.258**			χ^2=21.408***		
3차	박근혜	8 (34.8)	15(65.2)	0 (0.0)	12(52.2)	9 (39.1)	2 (8.7)
	문재인	25(42.4)	34(57.6)	0 (0.0)	27(45.8)	29(49.2)	3 (5.1)
	전체	33(40.2)	49(59.8)	0 (0.0)	39(47.6)	38(46.3)	5 (6.1)
	χ^2값	χ^2= .396			χ^2= .856		

* p<.05, ** p<.01, *** p<.001

나타났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주관적 공격은 49건(42.6%)로 나타났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 비방에 가까운 표현인 비방은 12건(10.4%)으로 나타났다(<표 11>참조). 전체적으로 사실적 공격과 주관적 공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실적 공격(54건, 47.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관적 공격(49건, 42.6%), 비방(12건, 10.4%)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6.258**). 3차 양자토론에서는 주관적 공격(49건, 5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실적 공격(33건, 40.2%)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실적 공격(52.2%)과 주관적 공격(47.8%)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는 주관적 공격(5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정희 후보는 사실적 공격(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두 후보와 다르게 비방의 비중이 20.7%를 차지하고 있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관적 공격(박근혜 65.2%, 문재인 57.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실적 공격(50.5%)와 주관적 공격(50.0%)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적 공격(46.7%)와 주관적 공격(53.3%)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사실적 공격(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사실적 공격(53.8%)와 주관적 공격(46.2%)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주관적 공격(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사실적 공격(48.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차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주관적 공격(박근혜 65.2%, 문재인 57.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관적 공격에 비중을 두는 반면, 이정희 후보는 사실적 공격에 비중을 두었으며, 12건의 비방을 모두 이정희 후보가 사용하였다.

후보자의 공격 유형(사실적, 주관적, 비방)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실적 공격 :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참여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3차토론, 문재인)

▣ 주관적 공격 : 권력형 비리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 왔던 검찰 내의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적청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묵묵하게 일해 온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검찰의 인적청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토론, 문재인)

▣ 비방 :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외면, 말 바꾸기, 각종 비리백화점, 꼬리자르기, 툭 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혁신 말할 자 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1차토론, 이정희)

공격 전략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비판인 비평이 46건(40.0%)으로 나타났고,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행위인 비난은 59건(51.3%)로 나타났으며, 비평 · 비난이 배제된 단순 정책질의는 10건(8.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난(51.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평(40.0%)과 정책질의(8.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1.408***). 3차 양자토론에서는 비평(39건, 47.6%)과 비난(38건, 46.3%)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비평(박근혜 52.2%, 문재인 61.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비난(72.4%)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비평(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비평(45.8%)과 비난(49.2%)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비난(박근혜 60.0%, 이정희 66.7%)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비평(4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비평(박근혜 69.2%, 문재인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비난(80.0%)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3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비평(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비평(45.8%)과 비난(49.2%)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후보자의 공격 전략(비평, 비난, 단순정책질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평 : 그런데 문 후보님의 복지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서 연간 19조원을 거두어서 사용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9조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신게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 예산이 연평균 4.6조원인데 지자체 부담분인 4.6 조원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또 올해 보육대란의 위기도 경험을 했는데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토론, 박근혜)

▣ 비난 :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백화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모두 지금까지 합쳐서 47명이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쪽에서도 벌써 부터 비리가 시작되고 있습니

다. 우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덕 선 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친박돈 공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만사꼴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1차 토론, 문재인)

[연구문제 1-3]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별 공격대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후보별 공격 대상을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정희 후보(56.5%)와 문재인 후보(43.5%)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문재인 76.5%, 이정희 72.4%)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표 12>참조).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표 12> 후보자별 공격 대상

단위 : 건(%)

차수·후보자 \ 공격대상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전체
1차	박근혜	0 (0.0)	13(86.7)	23(69.7)	36(62.1)
	문재인	4 (40.0)	0 (0.0)	10(30.3)	14(24.1)
	이정희	6 (60.0)	2 (13.3)	0 (0.0)	8 (13.8)
χ^2값		χ^2=33.194***			
2차	박근혜	0 (0.0)	13(68.4)	19(76.0)	32(56.1)
	문재인	6 (46.2)	0 (0.0)	4 (16.0)	10(17.5)
	이정희	7 (53.8)	6 (31.6)	0 (0.0)	13(22.8)
	기타	0 (0.0)	0 (0.0)	2 (8.0)	2 (3.5)
χ^2값		χ^2=33.392***			
전체	박근혜	0(0.0)	26(76.5)	42(72.4)	68(59.1)
	문재인	10(43.5)	0(0.0)	14(24.1)	24(20.9)
	이정희	13(56.5)	8(23.5)	0(0.0)	21(18.3)
χ^2값		χ^2=61.597***			

* p<.05, ** p<.01, *** p<.001

이정희 후보에게 고루 공격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격을 한 반면, 서로에 대해서는 공격 비중이 확연히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61.597***). 3차 토론에서는 양자토론에 맞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서로를 100%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82.000***).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지지도가 높은 유력 후보는 실제 경쟁상대인 유력 후보에게 집중 공격을 하였고, 지지도가 낮은 비유력 후보도 유력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격양상은 기존연구(김관규·김춘식, 2008; 김관규·박연진, 2007; 송종길, 2003; 송종길, 2004)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연구문제 1-4]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방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방어 유형을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실적 방어가 27건(22.9%)로 나타났으며,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주관적 방어는 91건(77.1%)로 나타났다(<표 13>참조). 전체적으로 주관적 방어(77.1%%)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차 양자토론에서도 주관적 방어(87.6%)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주관적 방어(박근혜 77.5%, 문재인 85.0%, 이정희 68.4%)를 확연히 높게 사용하였다. 3차 양자토론에서도 두 후보 모두 주관적 방어(박근혜 91.4%, 문재인

<표 13> 후보자별 방어 유형

단위 : 건(%)

차수·후보자 \ 방어유형		사실적	주관적
1차	박근혜	6 (30.0)	14(70.0)
	문재인	3(18.8)	13(81.3)
	이정희	7(43.8)	9(56.3)
χ^2=2.356			
2차	박근혜	3(15.0)	17(85.0)
	문재인	3(12.5)	21(87.5)
	이정희	5(22.7)	17(77.3)
χ^2= .922			
전체	박근혜	9(22.5)	31(77.5)
	문재인	6(15.0)	34(85.0)
	이정희	12(31.6)	26(68.4)
	전 체	27(22.9)	91(77.1)
χ^2=3.040			
3차	박근혜	5(8.6)	53(91.4)
	문재인	6(19.4)	25(80.6)
	전 체	11(12.4)	78(87.6)
χ^2=2.1496			

* p<.05, ** p<.01, *** p<.001

80.6%)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아도 후보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방어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1차 토론에서 세 후보 모두 주관적 방어(박근혜 70.0%, 문재인 81.3%, 이정희 56.3%)가 확연히 높았고, 2차 토론(박근혜 85.0%, 문재인 87.5%, 이정희 77.3%), 3차 토론(박근혜 91.4%, 문재인 80.6%)도 동일하게 주관적 방어의 비중이 높았다.

후보자의 방어 유형(사실적, 주관적)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실적 방어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학생들의 엄청난 부

담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누가 시작을 했냐 이거죠. 이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문후보님이 주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대는 무려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대학등록금이 4 %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선 문후보님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준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값으로 전부한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시켜놓은 것 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것을 또 반값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3차토론, 박근혜)

▣ 주관적 방어 :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 하려고 합니다.(3차 토론, 박근혜)

방어 전략을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하는 전략인 단순부정은 14건(11.9%), 비난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리는 전략인 책임전가는 9건(7.6%),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강조하는 전략인 차별화는 13건(11.0%),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가치로 승화시켜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게끔 하는 전략인 상황초월은 18건(15.3%), 정보 부재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고려한 전략인 폐기는 8건(6.8%),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칭하는 전략인 굴복은 13건(11.0%), 잘못된 행위나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인 최소화는 4건(3.4%),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전략인 동문서답은 1건(0.8%), 공격에 대해 즉각적을 상대방을 재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역공격은 37건(31.4%),이미지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으로 잘못한 행

<표 14> 후보자별 방어 전략

단위 : 건(%)

차수·후보자 \ 방어전략		단순부정	책임전가	차별화	상황초월	폐기	굴복	최소화	동문서답	역공격	수정행위
1차	박근혜	3 (15.0)	2 (10.0)	2 (10.0)	2 (10.0)	0 (0.0)	3 (15.0)	2 (10.0)	0 (0.0)	6 (30.0)	0 (0.0)
	문재인	2 (12.5)	1 (6.3)	2 (12.5)	2 (12.5)	0 (0.0)	3 (18.8)	0 (0.0)	0 (0.0)	5 (31.3)	1 (6.3)
	이정희	0 (0.0)	1 (6.3)	1 (6.3)	2 (12.5)	2 (12.5)	1 (6.3)	0 (0.0)	0 (0.0)	9 (56.3)	0 (0.0)
x^2값		$\chi^2=15.742$									
2차	박근혜	4 (20.0)	2 (10.0)	4 (20.0)	1 (5.0)	5 (25.0)	0 (0.0)	1 (5.0)	1 (5.0)	2 (10.0)	0 (0.0)
	문재인	3 (12.5)	2 (8.3)	1 (4.2)	5 (20.8)	0 (0.0)	6 (25.0)	1 (4.2)	0 (0.0)	6 (25.0)	0 (0.0)
	이정희	2 (9.1)	1 (4.5)	3 (13.6)	6 (27.3)	1 (4.5)	0 (0.0)	0 (0.0)	0 (0.0)	9 (40.9)	0 (0.0)
x^2값		$\chi^2=32.682^{**}$									
전체	박근혜	7 (17.5)	4 (10.0)	6 (15.0)	3 (7.5)	5 (12.5)	3 (7.5)	3 (7.5)	1 (2.5)	8 (20.0)	0 (0.0)
	문재인	5 (12.5)	3 (7.5)	3 (7.5)	7 (17.5)	0 (0.0)	9 (22.5)	1 (2.5)	0 (0.0)	11 (27.5)	1 (2.5)
	이정희	2 (5.3)	2 (5.3)	4 (10.5)	8 (21.1)	3 (7.9)	1 (2.6)	0 (0.0)	0 (0.0)	18 (47.4)	0 (0.0)
	전체	14 (11.9)	9 (7.6)	13 (11.0)	18 (15.3)	8 (6.8)	13 (11.0)	4 (3.4)	1 (0.8)	37 (31.4)	1 (0.8)
x^2값		$\chi^2=31.226^{*}$									
3차	박근혜	8 (13.8)	3 (5.2)	7 (12.1)	2 (3.4)	6 (10.3)	15 (25.9)	2 (3.4)	3 (5.2)	8 (13.8)	4 (6.9)
	문재인	3 (9.7)	1 (3.2)	7 (22.6)	0 (0.0)	0 (0.0)	6 (19.4)	0 (0.0)	0 (0.0)	14 (45.2)	0 (0.0)
	전체	11 (12.4)	4 (4.5)	14 (15.7)	2 (2.2)	6 (6.7)	21 (23.6)	2 (2.2)	3 (3.4)	22 (24.7)	4 (4.5)
x^2값		$\chi^2=19.357^{*}$									

* p<.05, ** p<.01, *** p<.001

위를 고치겠다는 약속인 교정행위는 1건(0.8%)으로 나타났다(<표 14>참조). 전체적으로 역공격(3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황초월(15.3%), 단순부정(11.9%), 차별화(11.0%), 굴복(11.0%)순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31.226*). 3차 양자토론에서는 역공격(2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굴복(23.6%), 차별화(15.6%), 단순부정(12.4%)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9.357*).

후보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역공격(20.0%), 단순부정(17.5%), 폐기(12.5%)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는 역공격(27.5%), 굴복(22.5%), 상황초월(17.5%)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역공격(47.4%), 상황초월(21.1%)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굴복(25.9%), 역공격(13.8%), 단순부정(13.8%)등이 높게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는 역공격(45.2%), 차별화(22.6%), 굴복(19.4%)등이 높게 나타났다.

토론 회차별로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역공격(박근혜 30.0%, 문재인 31.3%, 이정희 5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폐기(25.0%)과 단순부정(20.0%), 차별화(20.0%)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역공격(25.0%)과 굴복(25.0%), 상황초월(20.8%)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역공격(40.0%), 상황추월(27.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차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굴복(2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역공격(45.2%)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의 방어 전략(단순부정, 책임전가, 차별화, 상황초월, 폐기, 굴복, 최소화, 동문서답, 역공격, 수정행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순부정 : 삼성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는 것 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토론, 문재인)

▣ 책임 전가 :그런데 제가 반값등록금, 그러니까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어쨌든 낮춰야 된다는 것은 제가 2006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어요. 반값등록금 가지고 논란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데 제가 자꾸 힘을 실어서 얘기를 했지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3차 토론, 박근혜)

▣ 차별화 : 저는 항공우주산업의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 진주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의 공약에 들어 있고요. 그것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토론, 박근혜)

▣ 상황초월 : 우선은 야권연대는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가단일화 연대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요.(1차 토론, 문재인)

▣ 폐기 :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정희 후보께 서는 현실적인 바로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2차 토론, 박근혜)

▣ 굴복 :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1차토론, 문재인)

▣ 최소화 : 그리고 아까 6억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 할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1차 토론, 박근혜)

▣ 동문서답 :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재인 후 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 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만날 우리 서민들 애기하 시고... 혈세... (2차 토론, 박근혜)

▣ 역공격 : 보십시오. 지금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데 에 우선을 두면서 대학등록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온 것이 반값등록금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박근혜 후보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오히려 반값등록금 해 달라는 민주통합당의 요구,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의한 요구, 그 많은 요구들을 다 묵살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 때 와서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 이 아니라 장학금을 늘려서 반값등록금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3차토론, 문재인)

▣ 수정행위 : 지금 저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의 부족함

에 대한 하나의 성찰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차 토론, 문재인)

[연구문제 2]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는 주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차 토론은 정치 · 통일 · 안보 · 외교 분야, 2차 토론은 경제 · 노동 · 복지 분야, 3차 토론은 사회· 교육· 과학 · 환경 분야로 구분하였다. 3차 토론의 환경 분야는 중앙선관위에서 선정한 주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문재인후보가 자유토론에서 거론함으로써 분석유목에 추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제를 살펴보면, 1차 토론에서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정치 쇄신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2차 토론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복지 정책의 구체적 실현, 3차 토론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안,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토론 차수별로 후보자의 대통령 리더쉽, 국가를 이끌 역량, 국가비전 등을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추가하였다.

이번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중의 하나는 정치, 복지, 경제, 교육 분야였다(<표 15>참조).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아동 · 여성 · 노인관련 복지, 반값등록금등의 교육 분야에서 공방이 치열하였다. 주로 야당후보는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세부내용으로 1차 토론의 정치 · 통일 · 안보 · 외교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세 후보 모두 정치 분야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표 15> 주제별 후보자의 수사 목적

단위 : 건(%)

후보·목적 \ 주제		정치	통일 안보	외교	1차 토론 전체	경제	노동	복지	2차 토론 전체	사회	교육	과학	환경	3차 토론 전체
박근혜	주장	9 (32.1)	2 (25.0)	1 (16.7)	12 (28.6)	11 (45.8)	2 (33.3)	6 (16.2)	19 (28.4)	5 (25.0)	4 (11.1)	8 (33.3)	0 (0.0)	17 (20.5)
	공격	6 (21.4)	2 (25.0)	2 (33.3)	10 (23.8)	4 (16.7)	2 (33.3)	12 (32.4)	18 (26.9)	2 (10.0)	11 (30.6)	5 (20.8)	0 (0.0)	18 (21.7)
	방어	13 (46.4)	4 (50.0)	3 (50.0)	20 (47.6)	9 (37.5)	2 (33.3)	19 (51.4)	30 (44.8)	13 (65.0)	21 (58.3)	11 (45.8)	3 (100)	48 (57.8)
문재인	주장	8 (30.8)	6 (46.2)	3 (33.3)	17 (35.4)	10 (33.3)	3 (27.3)	9 (22.0)	22 (26.8)	7 (26.9)	4 (10.3)	5 (23.8)	0 (0.0)	16 (18.0)
	공격	8 (30.8)	4 (30.8)	3 (33.3)	15 (31.3)	9 (30.0)	3 (27.3)	17 (41.5)	29 (35.4)	15 (57.7)	18 (46.2)	13 (61.9)	3 (100)	49 (55.1)
	방어	10 (38.5)	3 (23.1)	3 (33.3)	16 (33.3)	11 (36.7)	5 (45.5)	15 (36.6)	31 (37.8)	4 (15.4)	17 (43.6)	3 (14.3)	0 (0.0)	24 (27.0)
이정희	주장	10 (25.6)	3 (20.0)	2 (20.0)	15 (23.4)	9 (29.0)	1 (11.1)	4 (19.0)	14 (23.0)	-	-	-	-	
	공격	20 (51.3)	7 (46.7)	6 (60.0)	33 (51.6)	13 (41.9)	4 (44.4)	8 (38.1)	25 (41.0)	-	-	-	-	
	방어	9 (23.1)	5 (33.3)	2 (20.0)	16 (25.0)	9 (29.0)	4 (44.4)	9 (42.9)	22 (36.1)	-	-	-	-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치쇄신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고, 그 외에도 통일·안보에 있어서의 NLL과 남·북간 선언 및 합의 대한 공방, 외교에서는 대미, 대중 및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관계,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방이 집중되었다.

수사 목적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방어(47.5)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 후보는 주장(35.4%), 공격(31.3%), 방어(33.3%)의 사용이 유사했으며, 이정희 후보는 공격(51.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후보 모두 정치 분야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차 토론의 경제 · 노동 ·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경제와 복지 분야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행복기금조성, 피에타 3법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고,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맞춤형 복지, 현실적인 복지 조달 대책

등에 대한 공방이 집중되었다.

수사 목적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방어(44.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 후보는 공격(35.4%)과 방어(37.8%)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도 공격(41.0%)과 방어(3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세 후보 모두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차 토론의 사회· 교육· 과학 ·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교육 분야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상교육,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반값등록금과 관련 공방이 치열했고, 그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과학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공방이 집중되었다.

수사 목적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방어(57.8%)의 사용이 확연히 높았고, 문재인 후보는 공격(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사회, 교육, 과학 분야에서의 언급이 많았는데, 특히 교육 분야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차 토론은 양자토론의 색깔에 맞게 공격과 방어가 확실히 드러났으며,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야당 후보는 공격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는 토론 형식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토론 형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6가지(기조연설, 사회자공통질문, 국민공모질문, 후보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마무리발언)형식으로 구분하였다. TV토론회에서 토론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론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용성이 차이가 나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토론 형식에 따라 후보자의 수사 목적은 분

<표 16> 토론형식별 후보자의 수사 목적

단위 : 건(%)

토론형식 \ 차수·후보자		1차			2차			전체			3차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
기조연설	주장	2 (100.0)	1 (100.0)	3 (75.0)	2 (100.0)	2 (66.7)	1 (25.0)	4 (100.0)	3 (75.0)	4 (50.0)	2 (100.0)	2 (100.0)
	공격	0 (0.0)	0 (0.0)	1 (25.0)	0 (0.0)	1 (33.3)	3 (75.0)	0 (0.0)	1 (25.0)	4 (50.0)	0 (0.0)	0 (0.0)
	방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자공통질문	주장	6 (100.0)	6 (66.7)	8 (57.1)	7 (100.0)	8 (80.0)	4 (40.0)	13 (100.0)	14 (73.7)	12 (50.0)	7 (100.0)	7 (70.0)
	공격	0 (0.0)	3 (33.3)	6 (42.9)	0 (0.0)	2 (20.0)	6 (60.0)	0 (0.0)	5 (26.3)	12 (50.0)	0 (0.0)	3 (30.0)
	방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χ^2값		$\chi^2=10.194^{**}$									$\chi^2=2.550$	
국민공모질문	주장	2 (100.0)	1 (100.0)	2 (50.0)	2 (100.0)	2 (66.7)	2 (66.7)	4 (100.0)	3 (75.0)	4 (57.1)	2 (100.0)	2 (66.7)
	공격	0 (0.0)	0 (0.0)	2 (50.0)	0 (0.0)	1 (33.3)	1 (33.3)	0 (0.0)	1 (25.0)	3 (42.9)	0 (0.0)	1 (33.3)
	방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후보간상호토론	주장	0 (0.0)	1 (10.0)	0 (0.0)	3 (15.0)	2 (7.7)	4 (16.0)	3 (9.1)	3 (8.3)	4 (9.8)	3 (13.6)	5 (16.1)
	공격	4 (30.8)	4 (40.0)	10 (62.5)	6 (30.0)	8 (30.8)	8 (32.0)	10 (30.3)	12 (33.3)	18 (43.9)	6 (27.3)	15 (48.4)
	방어	9 (69.2)	5 (50.0)	6 (37.5)	11 (55.0)	16 (61.5)	13 (52.0)	20 (60.6)	21 (58.3)	19 (46.3)	13 (59.1)	11 (35.5)
자유토론	주장	0 (0.0)	7 (28.0)	1 (4.2)	1 (5.9)	3 (17.6)	2 (11.1)	1 (2.9)	10 (23.8)	3 (7.1)	4 (6.3)	2 (3.3)
	공격	6 (35.3)	8 (32.0)	13 (54.2)	7 (41.2)	6 (35.3)	7 (38.9)	13 (38.2)	14 (33.3)	20 (47.6)	15 (23.4)	39 (63.9)
	방어	11 (64.7)	10 (40.0)	10 (41.7)	9 (52.9)	8 (47.1)	9 (50.0)	20 (58.8)	18 (42.9)	19 (45.2)	45 (70.3)	20 (32.8)
χ^2값		$\chi^2=10.347^{*}$									$\chi^2=20.889^{***}$	
마무리발언	주장	2 (100.0)	1 (50.0)	1 (50.0)	2 (100.0)	1 (50.0)	1 (50.0)	4 (100.0)	2 (50.0)	2 (66.7)	1 (33.3)	2 (66.7)
	공격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1 (25.0)	1 (33.3)	2 (66.7)	1 (33.3)
	방어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 p<.05, ** p<.01, *** p<.001

명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토론 형식에서 기조연설, 사회자공통질문, 마무리발언에서 세 후보 모두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후보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16>참조).

토론 형식별로 살펴보면, 기조연설은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장(박근혜 100%, 문재인 75.0%)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발언은 자제하고 방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정희 후보는 주장(50%)과 공격(50%)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장(박근혜 100%, 문재인 100%)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공통질문도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장(박근혜 100%, 문재인 73.7%)의 사용이 확연히 높았고, 이정희 후보는 주장(50%)과 공격(50%)의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학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194**). 3차 양자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장(박근혜 100%, 문재인 70%)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공격적 발언은 자제하고 방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정희 후보는 주장(50%)과 공격(50%) 비중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력후보는 주장에만 집중한 반면, 비유력후보들는 공격의 기회를 늘렸다.

국민공모질문은 이번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된 토론형식이다.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주장(박근혜 100.0%, 문재인 75.0%)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고, 이정희 후보는 주장(57.1%)과 공격(42.9%)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주장(박근혜 100.0%, 문재인 66.7%)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간 상호토론은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뤄지는 토론형식으로

치열한 공방 양상을 보인다.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방어(박근혜 60.6%, 문재인 58.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공격(43.9%)과 방어(46.3%)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방어(59.1%)에, 문재인 후보는 공격(48.4%)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다. 야당후보들은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토론도 국민공모질문과 마찬가지로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처음 적용된 토론형식이다. 후보 간의 직접적인 질문과 반론으로 후보간 상호토론과 마찬가지로 공격과 방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차, 2차 다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방어(박근혜 58.8%, 문재인 4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공격(47.6%)과 방어(45.2%)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347*). 3차 양자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방어(70.0%), 문재인 후보는 공격(63.9%)에 비중을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0.889***). 후보간 상호토론과 마찬가지로 야당후보들은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무리발언은 기조연설과 사회자공통질문과 마찬가지로 세 후보 모두 주장(박근혜 100.0%, 문재인 50.0%, 이정희 66.7%)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양자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주장과 공격의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4]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수사적 기법인 비유적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표 17> 비유법 사용 빈도

단위 : 건(%)

차수 / 후보자	1차	2차	3차	전체	χ^2값
박근혜	6 (20.0)	9 (27.3)	6 (37.5)	21(26.6)	χ^2=18.410***
문재인	5 (16.7)	9 (27.3)	10(62.5)	24(30.4)	
이정희	19(63.3)	15(45.5)	-	34(43.0)	
전체	30(100.0)	33(100.0)	16(100.0)	79(100.0)	

고대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직유와 은유, 풍유, 대유 등 비유법을 서로 구별해서 설명함으로써 화자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시도이다(Perelman, 1997/1982, p.144; 박동환, 2011 재인용).

이번 제 18대 대통령후보자 TV토론에서 비유법 사용 빈도는 전체 분석 단위 536건 가운데 총 79건으로 14.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7>참조).

3차 토론에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희후보가 전체의 4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는 문재인후보가 30.4%, 박근혜 후보가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8.410***).

비유적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합니다. 몸속에도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경제도 돈이 돌아야만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 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

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2차 토론, 박근혜)

▣제 손을 잡고 민생 살려달라고 또 새정치 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분들의 손은 바로 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오늘의 한국을 만든것은 어머니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은 세상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같이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2차 토론, 문재인)

[연구문제 4-1] 대통령 후보자 TV합동토론에서 후보자들 간의 비유적 표현에서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후보자들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에서 긍정적, 부정적 표현을 살펴보았으며, 그 대상을 본인, 타후보, 기타로 구분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표 13> 참조).

세 후보 모두 본인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타 후보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표현 사용으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표현,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부정적 표현의 사용은 상대후보의 정책 및 개인적인 약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권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표심을 낮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표 18> 후보자별 긍정적, 부정적 표현 횟수

단위 : 건(%)

후보자	비유 대상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	전체	χ^2값
박근혜	본인	12(100.0)	0 (0.0)	12(100.0)	χ^2=14.250***
	타후보	0 (0.0)	1 (100.0)	1 (100.0)	
	기타	2 (25.0)	6 (75.0)	8 (100.0)	
	전체	14(66.7)	7 (33.3)	21(100.0)	
문재인	본인	7 (100.0)	0 (0.0)	7 (100.0)	χ^2=19.821***
	타후보	0 (0.0)	3 (100.0)	3 (100.0)	
	기타	1 (7.1)	13(92.9)	14(100.0)	
	전체	8 (33.3)	16(66.7)	24(100.0)	
이정희	본인	6 (100.0)	0 (0.0)	6 (100.0)	χ^2=28.175***
	타후보	0 (0.0)	7 (100.0)	7 (100.0)	
	기타	1 (4.8)	20(95.2)	21(100.0)	
	전체	7 (20.6)	27(79.4)	34(100.0)	

* p<.05, ** p<.01, *** p<.001

이는 이미지강화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이미지강화전략이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박동환, 2012). 이미지강화전략도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변인임은 틀림없다.

후보자의 비유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유본인긍정 : 저는 제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위기 시에 구원투수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를 해오면서 신뢰를 저의 생명같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과거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하고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1차토론, 박근혜)

▣ 비유타후보부정 :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 을 이해하는 거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마리 앙뜨와네뜨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차토론, 이정희)

Ⅵ. 결론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후보자들의 수사와 비유적 표현이 후보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TV토론에 참여한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다.

본 연구에서는 TV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들의 발언을 536건의 분석단위로 선정해 분석하였는데 분석유목은 후보자의 수사 목적에 따라 주장, 공격, 방어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장은 주장 유형(사실적, 가치적, 정책적)와 주장 전략(칭찬, 자랑, 권유)으로 구분하였고, 공격은 공격 유형(사실적, 주관적, 비방)과 공격 전략(비평, 비난, 단순정책질의), 방어는 방어 유형(사실적, 주관적)과 방어 전략(단순부정, 책임전가, 차별화, 상황초월, 폐기, 굴복, 최소화, 동문서답, 역공격, 교정행위)으로 구분하였다.

토론 주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정치, 통일 · 안보, 외교 분야 / 경제, 복지, 노동 분야 / 사회, 교육, 과학, 환경 분야 등 세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토론 형식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국민공모질문, 후보 간 상호토론, 자유토론, 마무리발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후보자들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차, 2차 다자토론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 또는 반박에 관한 언급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인 방어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나 후보자가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며, 상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추진할 약속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언급인 공격은 35.3%, 자신이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추진할 일들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언급인 주장은 28.5% 순이었다. 3차 양자토론에서는 방어(42.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격(39.0%), 주장(18.6%)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어와 공격이 1.8%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급의 공격과 후보자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방어의 사용은 토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야당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공격의 비중이 높았으며, 집권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두 후보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 유형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정책적 주장을,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가치적 주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주장 전략에 있어서 세 후보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상대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권유의 사용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공격 유형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주관적 공격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이정희 후보는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실적 공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다른 후보와 달리 이정희 후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 비방 또는 흑백선전에 가까운 비방도 사용하였다. 공격 전략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비판인 비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정

희 후보는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행위인 비난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공격 대상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유력 후보는 실질 경쟁상대인 유력 후보에게 집중 공격을 하였고, 지지도가 낮은 비유력 후보도 유력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김관규·김춘식, 2008; 김관규·박연진, 2007; 송종길, 2003; 송종길, 2004)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방어 유형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주관적 방어의 사용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방어 전략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칭하는 전략인 굴복과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역공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희 후보는 역공격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상황초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토론 주제별 후보자들 간의 수사 목적을 분석하였다. 이번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중의 하나는 정치, 복지, 경제, 교육 분야였다.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아동 · 여성 · 노인관련 복지, 반값 등록금등의 교육 분야에서 공방이 치열하였다. 주로 야당후보는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방어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제, 노동 분야에서는 방어의 비중이 높았고, 통일·안보분야에선 주장, 그 외 분야에선 공격의 비중

이 가장 높았다. 이정희 후보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공격의 비중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3] 토론 형식별 후보자들 간의 수사 목적을 분석하였다. 기조연설, 사회자공통질문, 마무리발언에서 세 후보 모두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박근혜 후보가 가장 많은 주장을 사용하였다.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후보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공격하고 박근혜 후보는 방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때 첫 시행된 국민공모질문에서는 세 후보 모두 주장, 공격, 방어를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 수사적 표현인 비유가 후보자들 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유법 사용빈도는 전체 분석단위 536건 가운데 총 79건으로 14.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토론에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희후보가 전체의 43.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30.4%, 박근혜 후보가 26.6%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사용한 비유적 표현에서 긍정적, 부정적 표현을 살펴본 결과 세 후보 모두 본인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타 후보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수사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후보자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표현인 "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김춘식, 1997; 김춘식·김관규, 2008;전영란, 2007)결과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긍정적 언급인 "주장"

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려 나왔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독재 유신시대의 딸, 불통·오만·독선의 여왕, 박근혜 6억 등의 강한 직설적 표현으로 공격을 한 이정희 후보의 공격으로 박근혜 후보의 방어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후보들마다 수사의 목적이 다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는데 먼저, 야당후보들은 공격에, 집권여당 후보는 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지지도를 유지하고 견고히 하려는 집권여당후보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야당후보 간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토론 형식에 따라 후보자의 수사 목적(주장, 공격, 방어)은 분명한 차이가 난다. 이는 기존 구교태 · 김관규 · 이준웅(200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후보간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베노이트의 수사학의 기능적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가 비유적 표현들을 유목으로 시도했다. 비유는 후보 본인에게는 긍정적 이미지 강화 전략을, 상대방 후보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TV토론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사를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언론의 평가와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TV토론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 분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비유적 표현을 유목으로 활용하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TV토론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후보자의 수사 분석 방법에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연구할 수 있다.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토론 능력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외모, 의상, 몸짓, 표정, 태도, 목소리 톤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부각은 '이미지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비례하게 된다(전영란, 2007). 즉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로 인하여 후보자는 유권자가 원하는 이미지로 재탄생될 수 있다.

둘째, TV토론을 통한 후보자들의 설득이 유권자에게 어떠한 태도변용을 일으키는지도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는다. TV토론의 가장 큰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로 연결되며 선거에서의 당선의 결과로 입증되는 것이다. 차후에는 TV토론영향력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셋째, 3차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연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하지만 다자토론과 양자토론의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를 보완하여 더 나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중철(2003). 미국 대통령의 위기 수사(Rhetoric)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관규·구교태·이준웅(2006). 후보의 텔레비전토론 효과연구 : 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6권 4호, 51~88.

김관규·박연진(2007). TV토론에서의 후보 지지도와 토론 포맷에 따른 설득 전략의 차이 : 설득적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1(3), 47~87.

김관규·김춘식(2008). 2007년(제17대)대통령선거 TV토론의 설득적 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8권 2호, 51~83.

김광수(1995).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광고 내용분석. 『광고연구』, 28호, 65~91.

김세림(2013).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대한 국어교과학적 연구 :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연종(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커뮤니케이션 효과. 『Speech & Communication』, Vol.9, 167~206.

김영욱(2003). 정치인의 이미지회복 커뮤니케이션 : 김영삼 대통령의 IMF사태 관련 언변 중심. 『광고학연구』, 제 15권 5호, 397~421.

김영주·김춘식(2006). 미디어 선거와 유권자. 『한국언론재단』

김우룡(1998). 제 15대 대통령 선거 방송 합동토론회 운영의 제문제. 『제15대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378~381.

김인영·강태완(2003). 제 15, 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 논증전략. 『Speech & Communication』, 제 2권, 4~8.

김춘식(2001). 정치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한

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Vol. 13, 33~66.

김춘식(2003). 2002년 대통령선거 TV광고와 신문광고의 언어적 메시지 분석 : Benoit의 정치캠페인 수사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59호, 25~48.

김춘식·송종길·이민규·전영란(2004). 제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토론 수사분석: Benoit의 정치캠페인 수사분석틀 적용.『방송문화연구』, 16권 2호, 139~171.

김춘식·전영란(2006). 199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 수사분석. 『언론과학연구』, 제 6권 1호, 75~114.

박기순(2000). 이미지 회복을 위한 방어 전략 : PR문제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방법과 사례. 『홍보학연구』, 4권 2호.

박동환(2011). TV토론의 수사학 : 2011.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 분석.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석사학위논문.

박성창(2000). 문화와 기호 : 롤랑바르트의 초기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국불어불문학회』, Vol.44 No.2, 807~827.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 연설유형론과 착상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회』, Vol. 89, 343~361.

박우수(199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과학성에 관하여. 『인문학지』, 12, 57~95.

송종길(200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2권, 107~130.

송종길(2004). 2002년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48권 2호, 108~137.

송종길·박상호(2009). 17대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유권자의 태도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Vol.53 NO.6, 87~103.

안상혁(2003). 영상의 수사적 표현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54, 207~214

양태종(2002).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 착상을 중심으로. 『독어학』, Vol.5, 311~333.

양태종(2004b). 수사학의 생명력. 『수사학』, 창간호, 125~148.

이강형(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 제 16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한국언론학보』, 제 48권 2호, 366~368.

이귀혜(2007a).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수사학 : 에토스·파토스·로고스 개념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8호, 276~312.

이귀혜(2007b).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 수사학에 관한 연구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 전략 분석.『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62~90.

이남기(2001).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수사학적 전략에 관한 연구: 제 15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철(20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 제18대 대통령 후보 TV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문.

이수범·우정민·신동숙(2007).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설득전략 연구 : 2006년 서울시장 TV토론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Vol. 7, 38~75.

이영경(2011). 정치인 세종대왕의 수사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1995a). 선거와 TV토론.<선거와 미디어: 6·27 지방자치제 선거 보도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219~275.

이종희·오지양(2011). 후보자 TV토론회 토론포맷연구 :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55권 1호, 47~78.

이준웅(2003). 텔레비전 토론이 이미지, 이슈 근접성, 후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곡논총 34권(하)』, 성곡학술문화재단, 285~331.

이진로(2003). 한국 대통령선거의 TV토론 포맷 연구. 『영산논총』, Vol. 12, 175~191.

임성학(2013).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한국정당학회, 1~196.

임순미(2010). 정치리더의 레토릭에 나타난 가치프레임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21세기정치학회보』, Vol.20 No.1, 71~98

장애리(2012).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수사 전략의 특징: 성희롱과 부정비리 관련 정치인 사례 비교. 부산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영란(2007). TV토론에 나타난 선거 캠페인 수사에 관한 분석: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성호(2003).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 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제 47권 6호, 221~227.

최윤선(2003). 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언술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 3권 3호, 163~198.

황성근(2012). 미디어글의 수사학적 설득구조. 『수사학』제 16집, 193~223.

김영석(2008), 『설득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출판사.

김영욱(2002), 『위기관리의 이해 : 공중 관계와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 책과 길.

김욱동(1999), 『은유와 환유』, 민음사.

김현(1985). 『수사학』 , 서울: 문학과 지성.

박영목(2003). 『국어교육학원론』,박이정출판사.

현경식·이성호(2000). 『수사학적 성경 해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성지연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12. 11). 제 18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12. 12).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합동토론회 녹취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5 · 2010). <공직자선거법>.

Benoit, W.L(1995). *Accounts, excuses, and apologies: A theory of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enoit, W.L & Wells, W.T(1996). *Candidates in Conflict : Persuasive Attack and Defense in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Tuscaloosa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Benoit, W.L & Harthcock(1999). *Functions of the great debates : 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in the 1960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66, 341~357.

Benoit, W.L.(1999a). *Seeing spots: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idential television advertisements, 1952-1996.* Westport, CN: Praeger.

Benoit, W.L.(1999b). *Acclaiming, attacking, and defending in presidential nominating acceptance addresses.* Quarterly Journal of Speech, 85, 247~267.

Benoit, W.L.(2000). *A Functional analysis of political advertising across media, 1997.* Communication Studies, *51(3), 274~295.*

Benoit, W.L.(2001a). *The functional approach to presidential television spots: Acclaiming, attacking, defending 1952-2000.* Communication Studies, *52(2), 109~126.*

Benoit, W.L.(2001b). *Framing through temporal metaphor: The "Bridges" of Bod Dole and Bill Clinton in their 1996b acceptance addresses.* Communication Studies, 52(1), 70~84.

Benoit, W.L.(2007). *Communication in political campaign*. New York: Peter Lang Public Inc.

Benoit, W.L. & Currie, H.(2001). *Inaccuracies in media coverage of the 1996 and 2000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 Advocacy, 38, 28~39.

Benoit, W.L. & Pier, P.M. & Blaney, J.R.(1998). *Campaign '96 A Functional analysis of acclaiming, attacking, and defending,* Westport, CN: Praeger.

Benoit, W.L. & Brazeal, L.M.(2002). *A Functional analysis of 1998 Bush-Dukakis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 Advocacy, 38, 219~233.

Bizzell, P., & Herzberg, B. (2001). *Rhetorical Tradition: Readings from Classical Times to the Present.* Boston:BedfordBooks of St.Martin's Press.

Blaire, H.(1965).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s letter.*(H.F.Harding, Ed). Carbonda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Burke,K.(1969).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urke, K. (1973).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aim Perelmann·L.Olbrechts-Tyteca.(1982).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Coombs, W. 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s, CA: Sage.

Cooper, L. Trans.(1960). *The Rhetoric of Aristotle*, N.Y.: Appleton-Century-Crofts.

Fisher,W.R.(1970). *A motiveview ofcommunica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56.

Foucault, M.(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 Volume I. An introduction.* New York : Vintage.

Hovland, C.I, Janis, I.L., & Kelly, H.H.(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Psychological syudies of opinion chan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Kraus, S(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and Public Policy*, Second edition London. Mahwah, New Jersey : Lawrence Erlbau Association Publishers.

Lang & Lang(1962). Reactions of review, in S.Kraus(ed), The great debat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Lucaites, J.L., Condit, C.M., & Caudill, S.(1999). Part 1 : What can a rhetoric be? In J. L .Lucaites, C.M. Condit, & S. Caudill, S.(Eds), *Contemporary Rhetorical Theory*(pp.19-24).New York : Guilford Press.

Martel(1983). *Political Campaign Debates:Images, Strategies, and Tactics*, New York. Longman.

Miller, A.H. & Mackuen, M.(1979). *Learning about the candidate:* The 1976 presidential deb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43.

Richards, I.A.(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 B.H. & Benoit, W.L.(2001). P*residential debates stories accentuate the negative.* Newapaper Research Journal, 22(3), 30~43.

Scott, M.H & Lyman, S.M.(1968). “Accou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46~62.

Trent, J.D. & Fridenberg, R.V(2000). *Political Campaign communication: Principle and practices,* Westport, CT : Praeger.

Tulis, J.K.(1987). *The rhetorical presidenc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re, B.L.,& Linkugel, W.A.(1973). The spoke in defense of themselves: On the genetic criticism of apologia. Quarterly Journal of Speech, 59, 273~283.

Aristotle(1991). *On rhetoric*.(G.A.Kennedy, Tran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Aristotle(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설득의 변론기술』, 전영우옮김, 민지사.

Nelson, J.S., Megil, A., & McCloskey, D.N.(1987). The rhetoric of the human sciences. 박우수·양태종 외 역.(2003).『인문과학의 수사학:학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언어와 논증』,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Reboul, O.(1990). *Rhetorique.* 김인철 역 (1999). 「수사학」. 서울: 한길사.

Timothy A. Borchers, 『수사학 이론』, 이희복·차유철·안주아·신명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Ueding, G.(1996). Klassische Rhetorick. 박성철 역.(2003).『고전수사학』, 서울: 동문선.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Rhetoric Analysi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 2012 Presidential election

Eun Ji Kim

Department of major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hetorics of each candidate on TV debates fo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based on Benoit's functional theory.

For this purpose,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questions; firstly, what are rhetorical purposes(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of candidates on TV debates?, secondly, what are rhetorical purposes(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of candidates according to the debate topics selec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rdly, what are rhetorical purposes(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of candidates according to the forms of debates?, and fourthly, how do candidates use metaphorical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of total 536 units of analysis on the three TV debates, among rhetorical purposes(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candidates used "defenses" the most as attempts to restore their reputations after the attacks from opponents in order to persuade voters, and it was followed by attacks and acclaims.

Candidates showed differences in rhetorical purposes. While Park, Geun-hye used defenses a lot, Moon, Jae-in and Lee, Jeong-hee used attacks relatively more. As a result,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s

concentrated on attacks, and the ruling party candidate gave much weight to defenses.

Taking a step further from Benoit's functional theory, this study targeted metaphorical expressions as categories of analysis. In conclusion, metaphors were used to strengthen positive images of candidates themselves, and negative images of opponents.